

사도행전: 선교적 교회를 향하여

<학습 공과>

글쓴이 : 데니스 포스트 (Dennis Foust)
윌리엄 틴슬리 (William Tinsley)
브라이언 하보 (Brian Harbour)

Baptist Way Press®

,

사도행전: 선교적 교회를 향하여 -- 학습공과

: 2006 BAPTISTWAY PRESS R

BAPTISTWAY, Baptist General Convention of Texas, 333 North Washington, Dallas, TX 75246-1798

BAPTISTWAY PRESS R

, 1967

BAPTISTWAY

(BGCT) : (Charles Wade)
, : (Wane Shuffield)
/ : (Dennis Parrott)
: (Phil Miller)
: (Ross West),

(1 4)
()
(1 4)
()
(5 8)
()
(5 8)
()
(9 13 /)
()
(9 13 /)
()

(Pat Ekern), BGCT ,

: 2007 7

(Patty Lane): BGCT
P. (Nelda P. Williams):

♣ 이 교재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1. ,
2. , 가 .
3. 가 . (가)
4. , .
5. ,
6. .

1. .
2. . 4
3. **Baptist Standard**
 . **Baptist Standard** 214-630-4571 , 가
 baptistway@bgct.org . (.)
4. () .
5. , , ,
6. 가 .

성인용 성경공부

사도행전: 선교적 교회를 향하여 -- 학습공과

14 : 1, 2, 가 , .
() : 2, 5 8 . BGCT 가 X
BGCT , - ,
, 16 .

브라이언 하보: 단원 3, 9~13과 저자이다. 현재 텍사스 리차드슨 소재 제일침례교회 목사이다. 하보 박사는 알칸사 리틀락의 임마누엘 침례교회, 플로리다 펜사콜라의 제일 침례교회, 텍사스 달라스의 솔로 터레이스 침례교회, 미시시피 잭슨 소재의 컬로니얼 하이츠 침례교회, 그리고 조지아 아틀란타 소재의 우드랜드 힐스 침례교회에서 사역했다. 그는 베일러 대학에서 학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사도행전: 선교적 교회를 향하여 -- 학습공과

| | | |
|-----------------------|--------------------------------------|----|
| | | 2 |
| | | 3 |
| | | |
| <u>1: 능력 가운데 성장하기</u> | | |
| | | |
| 1 | _____ 예수님께 집중하기 | 7 |
| | (행 1:1-14) | |
| 2 | _____ 능력을 받아 사역하기 | 13 |
| | (2:1-24) | |
| 3 | _____ 참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서 살기..... | 19 |
| | (2:41-47) | |
| 4 | _____ 새로운 방식으로 사역할 준비를 갖추기..... | 24 |
| | (6:1-7) | |
| | | |
| <u>2:</u> | | |
| | | |
| 5 | _____ | 31 |
| | (8:4-8, 14-17, 26-36) | |
| 6 | _____ | 37 |
| | (9:10-28) | |
| 7 | _____ | 43 |
| | (11:1-18) | |
| 8 | _____ | 49 |
| | (11:19-26) | |
| | | |
| <u>3:</u> | | |
| | | |
| 9 | _____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을 따라가기 | 55 |
| | (행 13:1-6a, 13-16, 42-52; 14:19-22) | |
| 10 | _____ 예수께 다시 초점을 맞추기..... | 61 |
| | (행 15:1-22a) | |
| 11 | _____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 66 |
| | (행 16:13-15, 25-34) | |

| | |
|----|--|
| 12 | _____ 회의론자들에게 전도하기.....71 (행 17:10-11, 16-34) |
| 13 | _____ 안으로는 봉사하고, 밖으로는 전도하기.....76 (행 19:8-10; 20:18-35) |
| | _____ !.....81 (24:13-35) |

단원 1: 능력 가운데 성장하기

어떤 면에서 교회의 역사는 대대로 교회의 목적에 대한 탐구라고 할 수 있다. 당신의 교회의 역사 또한 회중 속에서, 또는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의 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기 위한 지속적인 탐구이다.

어떤 사람들은 모이는 교회에 집중하며, 교회가 꼭 차게 만드는 것에 관심을 쏟는다. 그들은 교회의 본질 중 “모임”에-교회 출석, 전도사역, 교회 성장, 교회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동참 증가-에 사람들이 관여하도록 온 노력을 기울인다.

또 다른 사람들은 흠어지는 교회에 집중하며, 교회가 세상과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것에 관심을 쏟는다. 그들은 지역사회의 음식물 저장소가 꼭 차고, 노숙자들을 위한 숙소나 다른 비슷한 사역들에 직원들이 충분하도록 만들며, 인간적 필요들을 채울 창의적인 전략들을 시행함으로써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데 자신들을 투자한다.

점점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사역을 모이는 것과 흠어지는 것 둘 다에 관련된 지속적인 움직임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교회의 본질과 목적을 선교적인 것으로 발견하고 있다. 그들에게 교회의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가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교회의 삶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성육신적으로 표현하는 일이다. 교회의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에 부합해야 한다.

1세기 이후의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는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 세상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베풀어 오신 방식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교회는 종종 하나님의 선교를 방해하는 방식으로 성령의 영향을 여과해 왔다. 교회 전체의 역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많은 능력들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 왔다.

교회 역사의 많은 이들이 통제, 정치, 물질적 부 등에 관심을 집중한 반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남은 자들이 언제나 존재했다. 이들은 세상 속으로 흠어져서 소외된 자들에게 사역하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고, 기갈한 자들에게 물을 주고, 노숙자들에게 쉼 곳을 제공하며 압제자들에 의해 갇힌 자들을 찾아갔다. 그러나 이들은 또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의 심연 속으로 여행하기 위해 모였으며,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과 함께 모이도록 전도했다. 예수님을 중심에 둠으로써 그들은 예수님이 주도하신 일들을 이어갔다.

본 공과의 첫 단원인 “능력 가운데 성장하기”는 행 1:8의 개요를 따라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에서의 복음 증거라 부를 수 있는 행 1:1-8:3의 본문을 다룬다. 이 과들에서 우리는 어떻게 초대 교회가 예수님에 집중하고 그에 따라 삶으로써 시작되었는지를 볼 것이며, 우리 모두가 참된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 행해야 할 기초적 행위들을 관찰할 것이다.

| | |
|--------------|--|
| [1] | |
| 행 1:1-14 | <p>학습주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한다.</p> <p>탐구질문 우리 교회는 어느 정도로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있는가? 나는 또한 어떠한가?</p> |
| 행1 | <p>학습목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집중해 있던 방식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교회의 집중도를 평가해 본다.</p> |

들어가기

예수님에게 집중함으로써 교회는 중대한 질문들에 당면하게 되며, 하나님의 선물들을 기다리게 되고, 새로운 종류의 왕국을 제공받으며, 기도 속에서 지속적으로 모이도록 동기부여를 받는다.

대대로 교회는 우리가 정직하게 묻고 대답하는 질문들에 의해 형성되고 변화된다. 당신의 교회는 어떠한가? 오늘날 어떤 질문들이 당신의 교회를 구성하고 또한 변화시키고 있는가? 당신의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당신의 교회는 또한 예수님에게 진정으로 집중하고 있는가? 사실, 당신은 어떻게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있는가? 이 과는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생각하도록 요구한다.

이 과를 시작함에 있어

사도행전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면서 행 1:1과 눅 1:1-4를 서로 비교해 보라. 각 본문에서 동일한 인물인 데오빌로가 언급되어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사도행전 1:1은 사도행전이 누가가 쓴 두 권의 책 가운데 두 번째 책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듯하다. 누가가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도 썼다는 사실에 기반을 두어 사도행전에서의 누가의 글에 대해 몇 가지 기초적인 사실들을 생각해 보자.

첫째, 사도행전이 누가의 두 권의 작품 가운데 두 번째 책이기 때문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둘 다 목적이 뚜렷하게 잘 구성되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둘 중 어떤 것도 뒤늦게 추가된 것이 아니란 뜻이다.

둘째, 누가는 우리에게 초대교회에 대해 매일 매일의 일기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대신 그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불린 운동의 초기에 중요한 순간과 행사들, 결정들, 사람들, 원리들의 스냅사진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초대 신자들에게 능력을 부여하고 인도함으로써 종교적 전통과 편견에 찬 관행들, 문화적 한계들을 뚫고 나갈 수 있게 해 주었음을 볼 수 있다.

셋째, 하나님의 선교는 누가의 글에서 중심 주제이다.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이 온 세상을 그 범위로 하고 있다고 보여 주었으며 하나님의 비전을 완수하기 위해 올 것이 더 있음을 강조했다. 따라서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과 사도행전의 첫 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이어가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교를 보여주기 위해 보내졌으며, 이를 계속하도록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가장 외진 곳까지 제자들을 보내신다. 사도행전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을 계속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읽히고 이해되어야 한다.

넷째, 사도행전은 과거의 사건들의 기록 이상의 무엇을 제공한다. 이 책은 미래의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에 따라 모이고 흠어지는 여로에 있어 어떤 청사진이나 길, 지도, 지침, 실마리, 조언을 제공한다.

사도행전을 공부해감에 따라 그 이야기들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 함께 적용하도록 하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도적 제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적 제자도의 선교적 삶 속에서 성숙해져 가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사역하며 하나님의 선교를 계속해 감에 따라 우리 가운데서, 또한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영향력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이 더욱 더 온전히 실현되어 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미에 대해 공부해 보자.

예수님에 집중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대한 질문들을 가져온다 (1:1-2)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서두는 데오빌로를 언급한다 (눅 1:3; 행 1:1). 우리는 이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복음서에서 누가는 “각하”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이 단어는 데오빌로가 고위의 관직을 갖고 있었음을 암시한다.

그러나 누가는 확실히 한 사람이 아닌 보다 많은 대중을 위해 썼다. 누가는 변화 중에 있는 초대 교회를 향해, 또 초대 교회를 위해 서신을 썼다. 누가가 글을 쓰고 있을 무렵 초대 교회는 예수님의 1세대 증인들에게서 2세대 신자들로 옮겨가고 있었다. 교회는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는가?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예수님의 성육신과 사역, 가르침, 삶, 죽음, 부활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신자의 공동체는 원래 자신들을 유대교 안의 갱신 운동의 일환으로 이해했다. 이제 그들은 이러한 하나의 종교적 집단이나 민족의 테두리를 벗어나 보기 시작했다. 또한 더 이상 유대인 제자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방인인 누가는 교회가 유대교적 기원을 벗어나 확장해 감에 따라 신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흐름에 대해 이해하도록 도울 필요를 발견했다.

초대 교회는 그 목적과 본질에 대한 명확성과 방향성을 모색하며 스스로를 재해석하고 있었다. 어떤 면에

서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중심적 역할에 대해 씀으로써 이러한 관점에 대한 기초를 놓았다.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 역시 이제는 “성령을 통해 (1:2)” 주어진 것으로 설명되어진다. 이 문구는 사도행전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상징이다. 누가에게 있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성령이라는 주제는 누가복음 전체를 통해 반복된다. 다른 그 어느 복음서 기자보다도 누가는 예수님의 생애에서 성령을 강조했다. 성령은 엘리자베스와 마리아에게 보내진 사자를 통해 언급된다 (눅 1:15, 35). 눅 4:1은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사십 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다고 말한다. 이후에 예수님이 고향으로 돌아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는 주의 성령과 관련해 이사야 61장에 대한 놀라운 해석을 제시하셨다 (눅 4:18-19).

누가에게 있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야 할 사람들이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가시적 표현이었던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가시적 증인이자 그의 사역의 지속이 된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한다.

예수님에 집중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 기다리도록 요구한다 (1:3-5)

누가는 예수님의 부활 후의 모습에 대하여 데오빌로에게 상기시켰다. 그런 뒤 누가는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지에 대해 멋진 문구로 설명한다: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보이시며 (눅 1:3)”. 누가는 엠마오 사건, 제자들이 예수님의 손과 발을 만진 사건, 함께 식사를 한 사건 등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부활 후 모습들을 독자들이 떠올리도록 만든다 (눅 24: 36-43).

누가는 또한 승천 이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날들에 대해 열거한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함께 하셨으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가르치셨다. 자신의 부활의 의미를 그들이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40일을 투자하신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실제성이 어떻게 다른 모든 현실들을 변화시키는지에 대해 깨달을 필요가 있었다.

누가는 이어 성령 침례를 위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강조했다. 삶에 대한 이러한 접근은 반문화적이다. 우리처럼 제자들도 기다림에 익숙하지 않았다. 인간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어디로 가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안다. 그러나 기다린다는 것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을 말한다. 만일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간다는 것, 즉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 보이는 일을 단순히 시작되어야 할 프로그램이나 캠페인 정도로 보았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무력했을 것이다.

교회의 영적 에너지는 언제나 기다림으로 시작된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영적 생동감과 능력을 경험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인간은 주님을 기다림으로써 영적으로 새롭게 된다 (시 46:10; 130:5; 사 40:29-31; 롬 8:22-25). 초대 교회의 효과적인 사역은 장기적 기획 과정이나 전략적 계획에 달려있지 않았다. 오히려 주님을 기다리고자 하는 그들의 자발적 태도에 기인했다. 이러한 자세는 지금도 유효하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은 새로운 종류의 왕국과 능력을 제공한다 (1:6-8)

성령의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침례요한의 침례보다 더 위대한 일이다. 이는 하나님의 성령의 삶 속으로 잠긴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성령 침례는 또한 사도행전에서 “부으심 (2:17-18)” “주심 (5:32; 10:44)” “받음 (8:15-19)” “충만함(9:17)” “임함 (19:6)”으로 묘사된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성령의 삶 속에 잠기는 경험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보다는 “왜”와 더 관련되어 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의 선교의 성육신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는 것이다.

우리는 만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40일 동안 가르치셨다면 그들이 적어도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나 성격에 대해 기초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제자들은 선지자와 랍비 전통으로부터 물려받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에 너무나 마음을 빼앗겨 중요한 점을 잊고 있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이 때인지를 묻은 제자들의 질문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나라 101이라는 강의를 그들이 제대로 공부하지 못했음을 드러낸다. 그들은 자신들의 교리에 눈이 멀어 있었다. 1:6에 나타난 제자들의 질문은 우리가 올바른 교리에 너무 치중할 때 선교를 놓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제자들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이까”라고 물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을 상상하지 못했음을 가리킨다. 2천년후의 우리 역시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했을 뿐이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성격과 본질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정치나 민족주의, 권력, 통제 등에만 관심을 둔다. 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영역들을 계속적으로 거부한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제자들의 관점을 논하는 방식으로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을 비껴가셨다. 그는 헬라어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두 단어, 즉 반구에서의 태양의 위치를 가르쳐주는 연대적 시간 (chronos)와 하나님의 완전한 때를 의미하는 시간 (kairos)를 구분함으로써 대답했다.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곤핍한 개념에 기초한 제자들의 오도된 질문에 대해 하나님의 시간표가 완벽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줌으로써 대답한 것이다.

그런 후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교가 얼마나 멀리까지 미칠 것인가에 대한 원대한 계획을 보이셨다. 제자들은 능력을 받을 것이지만 그들이 기대한 것과 같은 다양한 것은 아니었다. 마치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시는 듯하다: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권능이라면 그것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러한 능력을 주시는 목적은 너희들이 지역사회와 타문화권에서, 그리고 세상 끝에서 나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의 증인이 되도록 능력을 부여하신다.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임했던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제자들에게 주어진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 위에 서도록 하기 위해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대야와 수건에서 그 목적을 찾을 수 있다 (요 13).

예수님에 집중하는 것은 기도 속에서 지속적으로 모이는 것을 말한다(1:9-14)

예수님의 승천은 분명히 감람산에서 이루어졌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입을 벌리며 구름을 쳐다보고 있을 때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의 발은 앞을 향하여 있고, 그들의 무릎은 앞을 향해 굽혀져 있으며, 그들의 눈은 머리 앞에 놓여 있음을 상기시켜 주었다. 따라서 그들은 앞으로 전진하여야 했다. 이 두 사자는 또한 예수님이 언젠가 돌아오시리라고 예언했다.

예수님이 더 이상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지만 그는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한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몰두하지 말아야 한다. 그보다는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에 집중하여야 한다.

예수님이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기억하라. 그에게 기도는 자신과 하늘 아버지 사이의 요술 다리가 아니었다. 기도는 사역의 동역자들간의 지속적인 대화였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기도하라고 권면하셨다. 그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 또한 기도하기 위해 한적한 장소로 가시곤 했다. 따라서 예수님의 승천 후에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 쓴 사실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 (행 1:4). 예수님에게 집중할 때 우리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쓸 수 있다.

질문

1. 나이든 사람들이 젊은 세대들에게 비전을 제시하여 줄 때의 위험성은 무엇인가? 젊은 사람들이 비전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흐려지지 않도록 나이든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자신들에게 주어진 비전을 신실하게 실천해가기 위해 젊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두 그룹 모두 변화의 과정 속에서 자신들의 원래 비전을 재 상기하고 오늘날에 그 정신을 되새겨나감에 따라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
2.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 . .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눅 4:18-19)”고 자신이 지상에 있음을 말씀하셨다. 당신의 교회는 오늘날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이어가고 있는가?
3.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의 목소리를 듣고 그의 얼굴을 보며 그와 함께 동행하고 그의 가르침에 귀 기울였음에도 주님의 카이로스적인 시간에 대한 기다림이나 그들의 삶에 대한 주님의 목적, 권능의 사용에 대한 주님의 비전 등을 이해하지 못했다. 어떤 점에서 오늘날 우리는 이들과 비슷한가? 또한 어떻게 이들과 다르는가?
4. 혼란과 당황함의 가운데에서도 초기 신자들은 교회가 생겨나는 것을 보았다. 오늘날 혼란과 분규 가운데에서 당신 주변에 생겨나는 교회에 대해 어떤 예를 들 수 있는가?
5. 당신은 그 주요 목적이 기도인 그룹에 참여하고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이러한 그룹은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당신의 사역을 어떻게 만들어주고 있는가?

[참고]

예수님의 주권

헬라어로 증인은 순교자와 같은 단어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죽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 옛 삶의 방식에 대한 죽음을 상징하는 침례를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살게 됨을 선포한다. 침례는 우리의 내적 경험의 외적 표현이다. 우리는 우리의 자기중심적 의지를 죽이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사시도록 허용한다. 우리가 삶에서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성숙해 감에 따라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님이 각 신자의 삶에서 주님으로 권위를 갖는 것이다. 신약 신학자 침례교인 프랭크 스태크 (Frank Stagg)은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로서 임재하실 때 교회이다"라고 일깨운다.

우리는 침례교 원리인 영혼의 자유와 개교회 자치를 소중히 여긴다. 그러나 우리는 전적으로 자유하거나 자치적이지는 않다. 우리의 양심의 자유와 교회의 자치성은 우리 개인과 공동체의 삶 속에 있는 예수님의 주권의 영역 안에서 실행되어야 한다.

교회는함으로써 존재한다

신학자 에밀 부르너는 “불이 탐으로써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함으로써 존재한다”라는 강력한 말을 했다. 이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당신은 이에 동의하는가? 만일 그렇다면 당신의 삶과 교회는 이 진리를 어떻게 반영하는가?

하나님의 선교는 다음의 분야에서 어떻게 분명히 드러나는가?

- 당신의 삶에 대한 관점에서
- 당신의 삶의 제일 순위에서
- 당신의 자원의 투자에서 (시간, 에너지, 재정, 재능 등)
- 당신 교회의 재정 관리에서
- 당신 교회의 프로그램과 강조점들에서

| | |
|-----------------------------------|--|
| [2] | |
| <p>행 2:1-24</p> <p>행2:1-40</p> | <p>학습주제 성령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 사역하도록 능력을 입혀 주신다.</p> <p>탐구질문 우리는 자기 자신의 능력에 의존하여 성령의 능력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가?</p> <p>학습목표 사람들과 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입었을 때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 묘사해 본다.</p> |

들어가기

가망성 없던 증인들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새로운 생명의 능력을 힘입은 것처럼 교회가 더 강력하게 자라기 위해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주님이 그들을 이끄시도록 허용해야 한다.

이 장면을 상상해보라. 사도행전 2장이 시작되면서 우리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서 새로운 날의 여명 속에 새들이 지저귀는 것을 듣는다. 어떤 면에서 이 아침은 여느 아침과 다름이 없었다.

그러나 이 아침은 또한 독특한 경험을 제공한다. 이 날은 유대인 연력으로 오순절 날이었다. 오순절은 헬라어로 50을 의미하며 유월절과 무교절로부터 50일이 되는 날이다. 구약에서는 칠칠절로 불리며 밀 추수의 첫 소산을 봉헌하는 날이다. 오순절은 밀 추수 시기의 끝을 알리는 절기였으며 또한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 이 심계명이라는 선물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었다. 오순절은 성경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세 절기 중 두 번째 것이었다.

오순절은 그 자체로 독특했지만 이 날을 그 이전과 이후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게 만드는 무언가가 막 일어날 참이었다.

한 곳에 모여 (2:1)

이 날 아침, 평온함과 전통적 절기의 준수 뒤에서 또 다른 사건이 용트림하고 있었다. 이는 인류의 역사 전체를 통해 기억되어질 순간이었다. 이 날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지 50일 되고 승천하신지 10일 되는 날이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다 (행 1:4, 14).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경험에 비추어 그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 무엇이건 간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을 만큼의 중요한 일임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게 하시고 하늘로 올리우셨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제자들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했던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예수님은 이들에게 예루살렘에 남아 기도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하늘로부터의 선물을 기다림으로써 그들은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 확신했는가? 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한다고 가르쳐준다.

교회의 탄생 (2:2-4)

새들이 전경에서 짹짹 울 때 하나님은 후방에서 일하시고 계셨다. 하나님은 무언가 새로운 것을 일으키실 참이었다.

하나님은 언제나 후방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일으키고 계신다. 우리는 제자들의 열흘간의 기도 모임이 오순절의 기적을 일으켰다고 결론지어서는 안 된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한다면 우리도 오순절과 같은 경험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선물을 받을 수 있게 우리를 준비시켜 준다. 분만실 바깥에 모여 기다리는 가족들처럼 사도행전 2장의 제자들은 하나님이 무언가 새로운 일을 일으키실 것을 기대하면서 모여 있었다. 오순절은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교회가 탄생하는 날이었다.

“출연히 (2:2)” 어떠한 사전 경고도 없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아마도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소리 같은-가 하늘로부터 왔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 한다는 첫 번째 증거였다. 성령은 다른 성경 구절 속에서도 바람과 관련되어 있다 (왕상 19:11; 겔 37:9).

오순절의 성령 임재를 처음 지각하게 해 준 것은 청각이었고 그 다음은 시각이었다.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를 들은 후 제자들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목격하였다. 불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성경적 상징으로 사용되었다 (출 3:2; 사 30:27). 누가는 침례 요한이 이 사건을 예언했다고 기록한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메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눅 3:16).

바람과 불같은 성령의 외적 현현은 영적 회생이 하나님에게서 시작됨을 선포한다. 인간 영적 지도자들은 진정한 영적 회복을 만들어 낼 수 없다. 참된 영적 회복은 성령의 역사이다. 바람은 성령의 능력을 상징한다. 불은 성령이 세상 전체에 퍼지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임재임을 상징한다.

제자들이 강한 바람을 듣고 불을 본 후 성령임재의 세 번째 증거가 나타났다. 누가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2:4)”라고 기록한다. 남자와 여자, 부한 자와 가난한 자, 젊은이와 나이든 이, 지도자와 신도,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 이들 모두가 다 “저희가 다”라는 말에 포함된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 다른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께서 오순절에 처음으로 임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누가에 따르면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누가복음 전체에 걸쳐 그는 성령이 마리아 (눅 1:35)와 시몬 (눅 2:25-27), 예수 (눅 4:1, 14; 10:21)의 삶 속에 강하게 임재 하셨음을 보여준다.

성령은 오순절에 처음 출현하신 것이 아니다. 오순절 경험의 중요성은 성령께서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부어주시실 새로운 능력을 가지고 나타나셨다는 사실이다. 누가에게 있어 교회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하기 위해 능력을 받았던 오순절에 탄생했다.

복음 선포를 위해 능력을 받다 (2:5-13)

오순절은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연례적 절기 중 하나였다. 예루살렘 반경 20마일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오순절에 참여하도록 법적으로 요구되어졌다. 오순절 축제는 여행하기에 날씨가 좋은 이른 6월에 열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월절보다는 오순절을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것이며 전 세계로부터 찾아들었을 것이었다. 제자들이 성령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을 들었을 때 사람들 사이의 장벽이 무너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은 언제나 장벽을 넘어선다.

사도행전은 그 날 거기에 있던 각 나라인들의 출석부를 제공한다. 바대인, 메대인, 엘람인, 메소보다미아인들은 유대의 동쪽으로부터 왔다. 가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브루기아, 바빌리아는 소아시아에 살던 많은 유대인들을 대표했다. 그들은 지중해 연안으로부터 여행해 왔을 것이다. 유대인들은 600년 이상 애굽에서 살아왔다. 구레네와 로마에도 유대인이나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다양한 그룹들은 제 각기 다른 많은 언어를 사용했을 것이다.

해마다 오순절 주일에 우리 교회에서는 영어가 아닌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도행전 2:1-12을 회중 앞에서 읽는다. 이 본문을 히브리어, 타갈로그어, 독일어, 아랍어, 불어, 헬라어, 스페인어, 아프리카 방언, 중국어로 듣는 것은 오순절의 경험을 보다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함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장벽을 세우고 경계선을 그리는 때에 교회는 장벽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속해 나가도록 성령의 능력을 입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집중해 있을 때,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의 영감에 열려 있을 때, 그리스도의 사역을 받는 많은 사람들은 복음 메시지에 끌리고 그 의미를 이해하고 싶어 한다. 그 순간을 조롱하고 성령의 영감을 술주정이나 인간적인 무언가로 혼동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오순절 경험은 예루살렘에 모여든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사이에 어떤 질문을 만들어 냈다. 사도행전 2:12은 그들의 질문이 “이 어찌 일이냐”였음을 밝힌다. 그들의 질문은 베드로가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가망성 없는 증인들 (2:14-24)

상상의 방으로 들어가 보라. 당신은 2세기 교회의 일원이며 당신의 작은 신앙 공동체가 가진 두 개의 유일한 성경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다. 당신은 교회의 출현과 오순절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으며 이야기 속에 첫 번째 설교가 등장한다. 설교자는 바로 시몬 베드로이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들은 것은 1:15-22이다. 거기서 그는 유다를 대신하여 맛디아를 뽑는 교회 행정을 담당했다. 그러나 우리의 기억 속에 계속 남아 있는 것은 이전에 그가 어떻게 신실한 제자도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실패했는가이다. 반복적으로 그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을 부인했다 (눅 22:54-62). 누가복음에는 베드로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반복적으로 “예”라고 대답한 기사가 없다 (요 21:15-19 참조). 누가복음에서 우리는 베드로를 “심히 통곡”한 채로 버려두었다 (눅 22:62). 빈 무덤으로 달려간 후에 그는 그저 “그 된 일을 기이히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을 뿐이다 (눅 24:12). 우리는 눅 22:34에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음을 안다. 그러나 베드로 자신에게서 이에 대한 언급을 듣지는 못한다. 베드로는 막 시작된 교회의 첫 번째 설교자로는 적당치 못한 인물로 보인다.

이제, 21세기에 우리는 베드로의 설교에서 놀라운 위로를 받는다. 신약 성경으로 불리는 27권의 책 가운데 우리는 베드로를 신실한 증인들의 하나로 꼽는다. 그의 설교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나 또 다른 적당치 않은 증인인 바울이 행한 많은 설교나 연설들 중 첫 번째이다.

베드로는 그들이 술 취했다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반박하면서 그의 설교를 시작한다 (2:13). 그는 “때가 제 삼시”라고 지적한다 (2:15).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방언을 한 것은 음주벽이 아니라 예언의 실현인 것이다.

선지자 요엘은 말세에 하나님이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시리라고 예언했었다 (2:17).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모든 민족, 종족 그룹을 뜻한다고 해석한다. 또 다른 이들은 그 다음 구절인 “자녀” “젊은이” “늙은이”에 의해 설명된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지난 2000년간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베드로의 설교와 그가 언급한 요엘의 예언은 앞의 둘 다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지난 2000년 동안의 교회 역사에서 모든 민족의 남녀, 노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왔다. 그 결과, 주님을 부르는 어느 종족의 누구라도-모든 사람-이 구원을 경험했다.

베드로의 설교의 첫 번째 단락(2:22-24)은 흠어져 사는 유대인들을 위해 예수라 불린 한 남자에 대해 요약해 준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며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었고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표현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죽음에서 일으키셨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췄다.

설교의 나머지 부분에서 그는 시편 16:8-11과 시편 110:1의 두 본문을 해석했다. 유대인 청중들에게 예수님을 유대 성경의 완성으로 제시하는 것은 베드로에게 중요했다.

여기서 강조되는 능력은 베드로의 설교가 아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집중했다. 약속된 메시아가 오셨다! 오래된 예언이 성취되었다! 종말이 다가왔다! 예언의 완성이 시작되었다!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람들이 희망과 구원의 복음을 이해하도록 도울 가망성 없는 남녀노소의 증인들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교회에 권능을 부어주신다.

질문

1. 예수님이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께서 오순절에 교회에 능력을 주신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 이것이 초대교회의 제자들에게 의미한 것은 무엇일까? 당신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2. 기도와 기대에 찬 기도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만일 있다면, 당신은 오늘날의 신자들 사이에 어떤 것이 더 많이 보인다고 생각하는가?
3. “오순절은 예수의 사역을 계속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교회가 탄생한 날”이라는 말에 대해 생각해 보라. 당신은 이에 동의하는가?
4. 하나님의 성령을 남녀노소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 일에서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찾아 볼 수 있는가? 또 어떤 영력을 찾을 수 있는가?
5. 당신의 교회는 오순절 주일을 어떻게 지키는가?
6. 교회 역사 속에는 많은 가망성 없는 증인들이 하나님에 의해 쓰였던 이야기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참고]

다양성 속의 통일성

몇 년 전 뉴욕시를 방문하는 동안 본인은 맨해튼 성당 안에 모인 수천 명의 무리들을 보게 되었다. 이들은 시장과 상원의원, 주지사 같은 정치가들 무리였다. 또한 이들 가운데는 주민들의 대표자와 상점주인, 교육자, 사업가, 시민 대표, 경찰 대변인, 문화와 인종 그룹 대표, 그리고 갱 리더 들이 섞여 있었다. 그들은 시 전역에 걸쳐 폭력을 끝내자는 바람을 한 목소리로 부르짖기 위해 곳곳에서 찾아 왔다. 그날 밤 내 일기는 이렇게 써 있었다: “주님, 저는 당신의 나라는 다양성 속의 통일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청중들이 메시지를 귀담아 듣고 이해하며 반응하기 위해 다양한 목소리는 필수적이었습니다. 다양함 속의 통일을 추구한 우리 침례교 전통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오순절 그리스도인?

샘의 동료는 그가 “오순절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비난했다. 그는 성령이 샘의 삶에서 역사하고 계시지 않다고 주장했다. 샘은 자신의 목사에게 전화했다. 목사는 샘에게 갈 5:22에 기초한 다음의 몇 가지 질문들을 던졌다:

-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가?
- 당신의 삶에 기쁨이 있는가?
-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고 있는가?
- 주님을 인내로 기다리고 있는가?
-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한가?
- 다른 사람들에게 선하게 행동하는가?
-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 다른 사람들이 당신 안에서 온유함을 경험하는가?
- 절제를 보이는가?

당신은 어떠한가?

| | |
|----------------------------------|---|
| [3] | |
| <p>행 2:41-47</p> <p>행2:41-47</p> | <p>학습주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연합하며, 서로에게 사랑을 베풀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새 신자를 환영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야 한다.</p> <p>탐구질문 개인주의를 강조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발전시킬 수 있을까?</p> <p>학습목표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신생교회의 삶에 비추어 우리 교회의 삶을 평가해 본다.</p> |

들어가기

모든 신자는 회중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돕거나 혹은 방해한다.

어느 담임 목사 후보가 설교 능력을 평가받기 위해 단에 섰다. 목사 청빙 위원회는 목사 선임을 위한 나름의 요건들을 적은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기도하며 수많은 이력서들을 검토했고 다시 기도하며 소개서들을 점검했고 기도하면서 인터뷰를 시행했고 마지막으로 기도를 통해 이 후보자를 최종 선택하고 회중 앞에 선을 보이는 것이었다. 목사 후보는 이제 새 목사가 될 사람의 입에서 흘러나올 첫 마디를 기대하는 교인들에게 입을 열었다: “앞으로 몇 분 동안 여러분과 저는 유사한 것을 탐색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훌륭한 설교를 할 수 있는지를 탐색할 것이고, 저는 여러분이 훌륭한 설교를 들었을 때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지를 탐색할 것입니다!”

숫자 보다 중요한 것 (2:41)

어떤 사람들에게는 좋은 설교는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도록 하는 결과를 낳는다. 만일 이것이 효과적인 설교의 기준이라면 베드로의 첫 설교는 분명 매우 효과적인 것이었다. 그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받은 오순절 당일에 설교를 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에 반응을 보였다.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에 반응한 것일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응한 것일까?

오늘 공과에서 다루는 성경 본문은 교회의 수적 성장으로 시작해 끝을 맺는다. 41절은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에 반응하여 침례를 받고 제자가 된 약 3000명의 유대인들을 언급한다. 이들은 다양한 민족과 문화, 언어를 대표했다. 이들의 반응은 즉각적인 교회 성장으로 묘사될 수 있다.

본문의 말미에서 2:47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라고 요약한다. 이 구절은 초대 교회 신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의 삶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을 가리킨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 지를 지켜보고 경험함으로써 신앙 공동체로 이끌리게 되었다.

수적 성장에 대한 이 구절들은 숫자 이상의 것을 가리킨다. 그것들은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삶을 수용하였다는 증거이다. 오순절 사건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몇몇 사람들에게 의해 오전 9시에 시작되었다. 그 날이 가기 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으며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으로 입문했다. 초대 교회에 일어나고 있던 일은 단순한 수적 성장 이상의 것이다.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였다.

교회가 된다는 것에 관하여 (2:42-47)

오늘날 우리는 한 지역의 신자들의 몸을 묘사할 때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또한 우리는 전 역사에 걸쳐 세계 모든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모든 침례 받은 신자들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사용한다. 우리가 보다 너른, 후자의 의미에서 교회를 말할 때 많은 이미지들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게 된다-관계, 전통, 사람들, 교리, 프로그램, 경험, 원칙, 기관, 유산, 가족, 친구, 음악, 설교, 창문, 건축, 등 등.

그러나 우리 이전에, 우리 부모와 조부모와 그들의 부모 이전에, 어떤 교단이나 교리 이전에, 교회란 무엇이었는가?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무엇이 여기에 포함되었는가?

사도행전은 이제 이러한 주제로 우리를 이끈다. 사도행전은 앞에서 예수님의 승천과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의 선출, 오순절 성령의 강림, 다양한 언어 속에서 느껴지는 예수님의 메시지, 하루 동안 3000명을 회개시킨 베드로의 설교에 대해 말했다. 이제 사도행전은 초대 교회의 본질과 기능을 규정할 사건들에 대해 말하기 시작한다.

누가가 2세대 신자들에게 글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누가의 독자들이 그의 글을 접하게 될 무렵 초대 기독교 운동은 이미 교회라고 불리고 있었으며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누가는 여기서 초대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으며 주로 유대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묘사하기 시작한다. 그 사이 약 60여년의 시간 동안 많은 변화가 생겼었음이 분명하다.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첫 번 째로 말해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첫 제자들이 어떤 공통된 행위에 헌신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2:42). "힘쓰다"라는 말은 '자신을 완전하게 내주다'의 의미이다. 그들은 당회에서 투표를 하거나 동의, 제청의 절차를 통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제, 떡을 떼는 일과 기도에 온전히 힘썼다. 게다가 그들은 두려움 (43절) 가운데 함께 했으며 (44절)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4절)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소유를 나눠주고 (45절) 날마다 모이고 (46절) 주의 만찬에 참여하며 (46절) 음식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46절) 예배에 참여했으며 (47절) 예루살렘 시민들로부터 칭송을 들었다 (47절).

이러한 경험들은 모두 참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영역이었다. 이들 중 몇 가지, 특히 2:42에 언급된 것들에 대해 자세히 생각해 보자.

“사도들의 가르침”에 헌신함으로써 초기 신자들은 예수님에 대해 배우고자 하는 열망가운데 연합해 있었다. 그들은 사도들의 그리스도 중심적 히브리 성경과 신학 해석은 물론, 예수님의 가르침과 생활 원리에 대한 사도들의 기억을 배우는데 힘썼다.

초대 교회가 건전한 신학과 성경적 기초를 세우는 일이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에 있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만일 그들의 운동이 단순히 리더의 부재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었거나 오순절 날의 걱정에 대한 주기적 재현이었다면 그들은 상당히 다른 길을 걸었을 것이다.

사도들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히브리 성경의 약속을 성취하셨는지를 이해하려고 애썼다. 누가에게 유대인들의 성경은 예수님의 삶을 배경에 깔고 있었다. 사도들은 히브리 성경을 기독교화하는데 초점 맞추지 않았다. 오히려 예수님이 어떻게 히브리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셨는지를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애썼다. 초기 신자들은 이러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데 힘썼다.

초기 신자들은 또한 교제에 힘썼다. 처음부터 그들은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 (요 15:17; 13:35)에 반응했다. 그들의 서로에 대한 사랑의 표현은 연약함, 진정성, 상호간의 겸손과 정직에 기초한 교제를 일컫는 헬라어 단어인 *코이노니아*의 경험을 만들어냈고 발전시켰다.

그들은 또한 정기적으로 주의 만찬을 준수했다. 이것은 신자들이 예수님에 계속하여 집중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방식이었다. 유대교 전통에서 식사를 위한 축복의 기도가 드려질 때 그 식탁과 공유되는 식사는 성스러운 것이 된다. 이러한 전통이 초기 신자들의 성만찬 기념에 강하게 작용했을 것이다. 초기 제자들은 예배가 일주일에 한 시간 이상의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예배는 생활이었다.

누가는 그들이 기도에 힘썼다는 사실에도 주목했다. 아마도 그들은 유대교 전통 속에 정해진 기도 시간을 지켰을 것이다. 그들은 성전에서 날마다 모였다 (2:46).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다 (눅 11:1). 기도에 온전히 힘쓰므로써 초대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집중할 수 있었다.

초대 교회와 오늘날의 교회 (2:47)

오늘날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본질을 재발견하기 위해 고심 중이다. 그럼에도 너무나 자주 이들은 영적 회복을 열망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조직의 생존이나 기관의 성장을 더 바란다. 대부분의 교회는 최근에 유행하는 견해들을 수용하는 것을 통해 영적 회복을 이루려는 노력을 한다. 그들은 자신들과 성령 사이의 관계의 깊이를 새롭게 하기 위해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은 군중을 모으는 것을 목표로 하는 오락적 방향으로 치우쳐 진, 더 나은 기술이나 전자제품, 경험들을 향해 손을 뻗는다. 어떤 교회들은 심지어 마케팅 전략을 영적 회복의 비법으로 볼 정도로 현대의 사업체적인 마인드를 받아들인다.

그러나 만일 교회가 진정으로 예수 운동의 DNA와 본질을 재발견하고자 한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생산하는 다음의 필수적 가치들에 초점 맞춰야 한다:

- 그리스도에 대해 배우기: 그리스도의 삶을 배우고 성경을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공부하고 해석하기
- 서로 사랑하기: 개인주의를 벗어나 관계 중심적 신앙을 갖도록 연약함, 정직, 진정성, 상호간의 겸손에 기반을 둔 관계 속에서 자라기
- 하나님을 예배하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삶과 가르침, 세상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과 비전에 대한 하나님과의 대화로써의 기도에 집중하기
- 새 신자를 환영하기: 다양성을 포용하며 새로운 사람들을 믿음의 공동체로 수용하는 따뜻한 호의 베풀기

지교회가 이러한 주요 가치들을 추구할 때 그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서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무나 자주 우리는 교회가 마치 우리에게 속하였고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것처럼 다룬다. 공동체 안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도록 허용할 때 교회는 신비롭고 강력한 무언가가 될 수 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교회가 개인과 공동체의 신앙의 중심에 결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정도로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 생겨나기 시작한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않기 때문에 혼란스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깊은 연민을 표할 때 생겨나기 시작한다.

사도행전은 그리스도의 초기 제자들의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교회의 본질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풍부하게 한다. 그러나 성경 공부와 신학적 탐구가 우리를 교회로 만들어주지는 않는다. 진정성과 상호간의 겸손으로 서로와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를 교회되게 하지도 않는다. 예배를 위해 매주 모이는 것 역시 우리를 교회로 만들어주지 않는다. 기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교회로 만드는가?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2:43). 나는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두려움(경외)가 초기 신자들의 열심의 동기였다고 믿는다.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경외가 그리스도에 대해 배우도록, 서로 사랑하도록, 예배하도록, 기도하도록, 새 신자를 믿음의 공동체 속으로 환영하도록 하는 동기를 부여했다.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경외심은 그들의 관계를 인간적 영역 이상의 경지로 변화시켰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그들을 교회로 만든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경외 (awe)”란 무엇일까? 이 “경외”는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기사, 즉 하나님의 손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은혜와 모든 긍휼과 모든 사랑과 모든 정의를 고려한 이후에,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도록 그분이 섭리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방법을 고려한 이후에 우리가 말하는 단어이다. 이 모든 것과 또 다른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의 턱이 짝 벌어지고 우리가 내뱉을 수 있는 단어가 바로 “경외 (awe)”이다.

당신도 교회 회복의 과정에 일조할 수 있다. 기도하고 헌신하라. 당신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기도하라. 당신과 당신의 가족, 당신의 성경 공부 모임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더욱이, 개인으로서, 또 성경공부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삶의 원리를 배우는데, 서로 사랑하는데, 예배의 삶을 사는데, 교회의 삶에 다른 이들을 환영하는데 헌신하라. 그러나 무엇보다도,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 속에서, 당신의 예배를 지키도록,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계속해 지키도록 애쓰라!

질문

1. 교회의 영적 건강을 계속해서 지키는 것의 영향은 무엇인가? 영적 건강을 만들어 내는데 가장 중요한 5가지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a. 설교
 - b. 예배
 - c. 교육
 - d. 음악 스타일
 - e. 새 신자에 대한 환영
 - f. 마케팅
 - g. 경외심
 - h. 기도
 - i. 서로에 대한 사랑
2. 누군가 당신의 교회에 대해 물을 때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가? 우리는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교회를 건물이나 모임 이상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3. 참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경험했을 때 어떤 예가 머릿속에 떠오르는가?
4. 당신의 교회는 다음과 같은 일들에 얼마나 헌신해 있는가?
 - 그리스도를 배우는 일
 - 서로 사랑하는 일
 -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 새 신자를 환영하는 일

[참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 살기

당신의 교회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 살도록 장려하는 대화에 일조할 준비를 하라. 이 과를 공부하고 적용하는 것과 아울러, 당신의 담임 목사와 사역자들, 교회 주요 지도자들이 그러한 방향으로 교회를 움직여 나가도록 권면하라. 이 주제에 대한 실제적이고 유용한 책 중 하나는 침례교도인 밀프레드 미나트리아 (Milfred Minatrea) 가 쓴 Shaped by God's Heart: The Passion and Practices of Missional Churches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선교적 교회의 열정과 관행)이다.

| | |
|------------------------------|--|
| [4] | |
| <p>행 6:1-7</p> <p>행6:1-7</p> | <p>학습주제 효과적으로 필요를 채우는 교회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사역을 하는데 열려있다.</p> <p>탐구질문 왜 우리는 새로운 상황들이 새로운 접근법들을 요구할 때에도 여전히 전과 같은 낡은 방식으로 사역하기를 고수할까?</p> <p>학습목표 왜 그리고 어떻게 초대 교회가 새로운 사역 방법들을 발전시켰는지 묘사하고 오늘날 새로운 사역의 기회들과 대비해본다.</p> |

들어가기

선교적 교회는 갈등의 상황들 속에서조차 언제나 새로운 사역을 시작할 기회를 찾고 있다.

우리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시대 속에 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운이 좋다. 내 친구는 최근 “만일 이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아마 나는 지금 이 시대로 여행할 승차권을 샀을 거야”라고 말했다.

2006년 5월 나는 아프리카의 가난을 경험하기 위해 케냐, 잠비아, 짐바브웨, 보츠와나로 두 주간의 여행을 떠났다. 잠비아의 치냐나라는, 전기도, 내부 수도 시설도 없는 외딴 마을의 작은 바나나 숲에서 한 농부와 그 가족과 함께 점심을 먹고 있는 동안 우리가 나누었던 정담은 갑자기 휴대폰이 울리는 바람에 중단되고 말았다.

우리는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다. 거리와 분리의 담은 통화 기술로 인해 허물어지고 있다. 여행 제한 또한 항공 역학에 의해 사라지고 있으며 언어의 장벽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인해 감소되고 있다.

그리스도의 초기 제자들처럼 우리는 새로운 기회와 도전들에 맞서고 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선교적 교회로 세상 속에서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사역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교회의 사역의 청지기들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더없는 축복이자 도전이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모습 (행 3-5)

이전 단원에서 우리는 행2:41-47을 공부하였다. 거기에서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가치들인 그리스도를 배우는 일, 서로 사랑하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새 신자를 환영하는 일을 다루었다.

이 과에서 우리는 행 6:1-7을 살펴 볼 것이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3-5장 사이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사도행전 6장에 이르기까지 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어떤 여정을 겪었을까?

첫째, 참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오르는 길에 앓은뱅이에게 사역하도록 이끌었다 (행3:1-10). 이 사건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에 대해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3:11-26). 그 결과로 그들은 제사장들과 성문지기들에 의해 붙잡혀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그들의 메시지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결단하게 되었다 (4:1-21).

둘째, 이러한 베드로와 요한의 경험은 많은 다른 신자들을 담대하게 만들었다. 이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보다 깊고 담대하게 포용하게 되었다 (4:22-31).

셋째, 신자들은 이전보다 더욱 연합하게 되었다. 그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4:32). 그들은 재물을 쌓는 대신 나누고 그리스도에 대한 삶의 간증을 서로 나누었다. 또한 자신들을 희생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살폈다. 바나바는 이러한 그리스도 공동체 안의 나눔 사역에 헌신하였고 또한 그의 신실함이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였기 때문에 초대 교회에서 지도자로 부상했다 (4:32-37).

넷째, 이러한 참된 공동체 앞에서 거짓의 삶을 살고자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타산지석의 교훈이 되었다 (5:1-11).

다섯째, 기적의 증거들은 교회의 지속적 성장과 사역을 가져왔다 (5:12-42).

따라서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되는 여정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종교적 타락과 도전 속에서 담대함과 용기를 보여주며, 위선과 이기심보다 신뢰와 희생을 싹틔우며, 위협과 정치적 압력 앞에서도 신실함을 표현한다는 것을 배운다. 이러한 여정은 우리가 다양성을 갖추고 수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를 경험하도록 해주며 또한 도전을 던져준다.

사역 기획의 청지기로서의 교회 (6:1)

참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 던져진 첫 번째 도전은 교회의 성장과 문화적 다원주의 속에서 생겨났다 (6:1). 오늘날 우리의 대화에 가장 중요한 화두 중 하나는 문화적 다원주의와 관련되어 있다. 국경 경비대는 나라 사이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국경 경비대는 많은 회중들 사이에도 존재한다. 이러한 국경 경비대는 주일에 방문한 방문객들 중 누구를 계속적으로 초대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살핀다.

많은 사람들은 도덕적 문제에 대한 교회의 증언에만 관심을 쏟는다. 확실히 교회는 가난, 범죄, 폭력, 전쟁, 낙태, 성, 사형제도, 사회 경제적 관계 등과 같은 주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 분명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도덕적 가치들을 다루는 한편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협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오늘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증인이 되는 것을 위협하는 것은 거짓된 교제와 알팍한 제자도, 인위적 예배이다. 그리스도의 교회의 증인됨은 내적인 그리스도의 삶에 집중해야 할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등을 돌리고 카페트의 색깔이나 교회 건물의 위치, 음악 스타일과 같은 문제로 회중을 갈라놓을 때 마다 위협 받는다. 교회의 증인됨은 화평의 사람이 되어야 할 교인들이 인색함을 가질 때 마다, 과욕으로 인해 가난한 사람들이 고통받을 때 마다, 절제보다 혼란을 우리가 선택할 때 마다, 신실함 대신 이기적인 야심을 택할 때 마다, 자비와 희생보다는 분열을 촉진시키는데 에너지를 쏟을 때 마다 위협 받는다.

우리는 오래된 만화의 주인공인 포고 (Pogo)가 자신의 소대와 적들 간의 오랜 야밤의 총격전 이후 상관에게 보고했던 것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포고는 총격전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나갔다가 돌아와 이렇게 말한다: “소대장님, 우리의 적은 바로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깜깜한 밤이어서 서로를 알아보지 못한 탓에 소대원들은 서로를 향해 총을 쏘았던 것이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정치적 문제에 사로잡혀 한 정당의 후보자가 당선되도록 지지하는 일에 열중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과업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윤리나 도덕적 관점과 정치적 입장에 대해 서로 토론하고 야음을 틈타 서로에게 총격을 가해나갈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한 국가의 시민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복음의 빛을 통해 서로를 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적은 바로 우리 자신이었다”는 포고의 말은 계속해서 현실이 될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의 교회가 선교적 정체성을 포용하고자한다면 우리는 도덕적, 정치적 문제에 대한 집중을 벗어나야 한다. 대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역 기회의 청지기로 보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총성과 존경을 요구하는 어떠한 개인이나 단체, 조직, 기관으로 인해 우리의 선교적 소명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총성을 표하라고 요구하는 이들을 위해 일하기를 거부하는 대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함께하는 이들과 가까이 같이 사역하도록 하자. 과거의 문화적 제한을 벗어난 방식으로 사역할 준비가 된, 사역 기회의 청지기들이 되자. 그리스도의 초기 제자들은 이러한 교훈을 배울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갈등 속에서 사역의 기회를 발견하기 (6:2-4)

누가는 갈등의 원인을 이렇게 설명한다: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6:1). 우리는 이제 178절을 뛰어넘어 초대 교회의 연합이 공격받고 있음을 발견한다. 숫적 성장과 문화적 다양성이 이러한 문제가 생겨나도록 공조했다는 사실은 그다지 놀랍지 않다.

교회의 수적 성장은 종종 감춰진 많은 문제점들을 생겨나게 한다. 가능한 관계의 수가 갑작스럽게 늘어난다는 것은 잠재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두 사람만 있는 그룹에서는 오직 두 개의 가능한 관계가 생겨난다

(AB와 BA). 세 명이 있을 때는 여섯 개의 가능한 관계가 형성된다 (AB;AC;BA;BC;CA;CB). 가능한 수의 관계를 결정하는 수학적 공식은 $PR=N(N-1)$ 으로 PR은 그룹 내의 가능한 관계 수를 나타낸다. 만일 한 그룹에 열 두 명의 사람이 있다면 가능한 관계의 수는 132이다 ($12 \times 11 = 132$). 이제 당신의 교회 교인수를 생각해 보라. 당신의 교회 교인수가 300명이란 그 안에서 생겨날 수 있는 관계의 수는 89,700이다.

행 2:41에서 누가는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이 응답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숫자는 많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행 2:47은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했다고 말한다. 4:4은 5000명의 숫자를 언급한다. 따라서 6:1에 이를 무렵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 수는 적어도 5000명은 되었을 것이다. 이는 초대 교회의 신자들간에 적어도 24,995,000의 가능한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말이다. 그 안에 어찌 문제가 없었겠는가!

갈등의 또 다른 원인은 문화적 다양성에서 찾을 수 있다. 자신들의 과부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의해 무시되고 있다고 불평하는 헬라계 유대인 그룹 사이에서 조화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지 상상해 보라.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 지역과 민주당 지지 지역이 서로 협력하게 하는 일이 쉽지 않음은 그리 새롭지도 않은 일이다.

교회 발전의 초창기에는 유대인들로만 구성되어 있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이 아닌 지역에서 태어났다. 그들은 로마 제국의 언어인 헬라어를 말했고 삶의 태도에 있어 유대인들보다는 헬라인들을 닮았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의 역사적 언어인 아람어나 히브리어를 사용했고 유대인의 관습과 문화를 보존하는 것에 초점맞췄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갈등 이상의 무엇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갈등으로 가장한 사역의 기회에 대한 이야기이다. 당신이 귀 기울여 듣는다면 아마도 무시되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타당한 문제를 제시하고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사도들은 사람들을 통제하거나 조종하는 의존적 체제를 만들기보다 사람들을 기도와 예배, 교육, 선포 속에서 인도하는 기본적 소명에 충실했다. 사람들은 사도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신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보다는 사도들은 어떤 제안을 했고 사람들은 그것을 잘 받아들였다. 사도들은 사람들에게 그들 중 일곱 명을 선출하여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당부했다. 선택된 사람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어야 했다.

사도행전이 여기서 집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주해자들은 이 일곱 명이 교회 최초의 집사들이었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사실이건 아니건 간에 이 기사는 분명 집사의 본질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바로 섬김의 마음이다.

본문은 또한 교회의 삶과 사역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드러낸다. 첫째, 교회의 삶과 사역은 지도력을 요구한다. 성령에 의존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내릴 줄 아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나누어준다고 하여서 영적 지도력이 위협을 받는 것은 아니다. 둘째, 성도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사역하도록 도울 지도자들을 선출하는데 열려 있었다. 필요가 생겨났고 이를 위해 사역할 사람들이 선택되었다. 셋째, 지도력은 위가 아닌 아래로부터 파생되었다. 교회의 건강과 삶을 위해 교회의 사역은 교회에 의해 이루어진다.

새로운 방식으로 교회를 하기 (6:5-7)

이 기사 속에서 놀라운 현실이 드러난다. 선출된 일곱 명은 모두 헬라파 유대인이었다. 그들의 이름을 들어 보라: 스테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본, 바메나, 니콜라. 모두가 헬라식 이름이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사역할 초대교회의 첫 지도자들이 되도록 허용했다. 지역주의는 그리스도의 몸의 유익을 위해 종의 리더십에 자리를 내주었다. 초대 교회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고 그를 위한 수단을 강구해냈다.

사도행전의 투옥과 순교의 기사 사이에 놓여 있는 이 본문이 뭔가 부자연스러워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교회의 삶의 근본적 진리를 대변한다. 교회의 증거와 능력은 대부분 외부의 영향력에 의해 위협받는 것이 아니다. 교회의 증거와 능력은 문제 해결의 일부가 되고자하기 보다는 갈등과 문제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 때문에 위협받는 것이다.

선출된 일곱 명은 단순히 과부들을 돌보는 이들이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종이 되고자 한 그들의 자원하는 마음과 성령에 대한 의지, 그들의 지혜는 교회의 리더십의 공적인 자리에서 그들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도록 만들었다. 사도행전 7-8장은 스테반과 빌립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교회의 초창기에 복음을 담대히 전하도록 훌륭하게 사용되어졌는지 말해준다.

행6:7은 교회가 이렇게 새로운 방식으로 사역한 것의 결과에 대해 요약해준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교회는 새로운 방식으로 사역하는 것에 열려있을 때 이전에 알지 못했던 능력을 발견한다.

당신의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갈등이나 도전이 무엇이건 간에 사역의 기회, 특히 갈등으로 위장한 문제들을 살펴보라. 또한 새로운 방식의 사역을 추구하면서 교회의 목사님과 영적 지도자들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권장해보라.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에서 이러한 교훈을 얻어 보자: 새로운 방식으로 사역하는 것은 누가 공을 인정받는가보다 더 중요하다.

질문

1. 교회에서 20년 전에는 없었지만 지금은 있는 사역의 기회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2. 당신 교회의 생활과 사역에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당신은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가? 교인들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푸대접을 하고 있는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3. 만일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보다 정치와 사회의 도덕에 대해 경찰노릇을 하는데 더욱 더 관여한다면 교회는 무엇을 상실하게 되는가?

4.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필요들을 당신의 교회는 어떻게 채워주고 있는가? 그 어느 누구도 교회의 사역으로부터 방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하고 있는가?
5. 당신의 교회는 지도자들을 어떻게 선출하는가?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할 자격이 있는 사람에 대해 교회는 어떠한 기대를 갖고 있는가?
6. 당신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가장 효과적이고 영향력 있는 영적 지도자들은 누구인가? 이 사람들이 영적인 지도자들로서 효과적이고 영향력 있도록 만든 것은 무엇인가?

[참고]

교회의 자치와 만인제사장

침례교인들은 지역 교회의 자치와 만인 제사장론을 수용한다. 이 원리들은 최근 몇 년간 경시되고 공격받아 왔다. 사도행전 6:1-7의 학습은 우리에게 모든 침례교인은 하나님의 선교의 청지기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서 자치를 표현해야 한다고 상기시켜 준다. 더욱이 모든 교인들은 다른 누군가의 직위나 권력에 복종치 않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신앙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

교회의 자치와 만인 제사장 원칙은 교회의 삶에 갈등을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나 역사를 통해 침례교인들이 포용해온 이러한 원리들이 없다면 교회는 영적인 능력도 없고, 또한 소외된 자들에게 무심한 하나의 제도화된 기관에 그치게 된다.

사례 연구

제니와 샘은 그녀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교회를 떠났다. 제니의 어머니가 암으로 투병하는 말년에 그들은 그녀를 자신들의 집으로 모셨다. 팻시는 어느날 식료품 가게에서 제니를 만났을 때 교회가 혹 그들을 실망시켰는지에 대해 물었다. 제니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 감사해 하며 이렇게 말했다: “엄마가 죽어가는 동안 교회의 어느 누구도 전화를 하거나, 카드를 보내거나, 집에 찾아오지 않았지요. 교회에 안 나간지 16개월이 되었는데도 누구하나 연락하지 않았답니다. 지금은 다른 교회를 찾고 있어요.”

당신이 팻시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단원 2: 세상 속으로

, “ ... ” 1

8 4 12 25
가

(8:1-3 8 1)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4가

1) _____ 가?
2) _____ 가 가?
3) _____ 가 가 가?
4) _____

가

2. (8 4 - 12 25)

5
6
7
8

| | |
|------------------------|---|
| [5] | |
| 8:4-8, 14-17, 26-36 | <p>학습주제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외면하는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셨다.</p> <p>탐구질문 우리의 안식처를 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신 대상은 누구인가?</p> |
| 8:1-40 | <p>학습목표 초대교인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안식처를 넘어서 복음을 전했는가를 공부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가 우리의 안식처를 넘어서 복음을 전해야할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본다.</p> |

들어가기

30년 전, Martin Luther King Jr. 목사는 미국에서 일요일 오전 11시에서 12시까지가 일주일중 가장 경건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같은 신자들과 같이 이 시간대에 예배에 참석하고, 그들처럼 거룩하게 말하고 그들처럼 거룩하게 행동한다. 그들에게는 이 시간대가 가장 편한 사람들과 같이 보내는 편안한 시간이다.

초대교인들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후, 예루살렘에서의 종교생활에 편안함을 느끼고 있었다. 매일 신자는 늘어났다. (행 2:47) 하지만 교회는 오직 유대인들만이 모이는 유대인 유일문화였다. 교회에는 유대인들만 참석했고 유대인들만 포함되었으며 사도들은 예루살렘 밖으로 복음을 전할 계획이 전혀 없었다. 처음에는 이 이야기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다른 문화와 다른 나라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예수님의 재림만을 기다리던 그들의 모습을 상상해보면 어쩌면 당연한 행동이이었을지도 모른다.

거의 우리들 대부분도 이와 비슷한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한다. 우리는 우리와 친한 성도들과 같이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편한 안식처를 떠나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길 얼마나 원하시는지 잘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은 초대교인들이 다른 지역과 다른 문화권으로 흩어지도록 박해와 고난을 허락하셨다. 사도행전 6장에서 선출된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스테반 집사는 권세자들 앞에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다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된다.(행

7장) 이 사건을 계기로 교회의 박해가 시작되고 예루살렘 전 지역으로 박해와 순교가 퍼지게 되면서 신자들은 유대와 사마리아로 피신을 목적으로 퍼져나가게 된다.(8장 1절후) 그 결과, 다른 지역으로 피신한 신자들이 그 지역의 다른 문화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역사가 시작된다. 그들은 그들의 안식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식처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 우리와 다른 민족에게 복음 전하기 (8:4-8)

사도행전 8장은 빌립의 사마리아전도여행에 대해서 설명한다. 사마리아는 갈릴리 북부와 유대의 남부사이에 위치한 지역으로 특히 유대인들에 의해서 천대받고 무시된 지역이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지역을 피해서 여행을 했으며 되도록 사마리아인들과 상종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인종이었다.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앗수르에게 망하게 될 때 대부분의 실력 있는 자들과 남자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부녀자들과 고아들만 그 땅에 남게 된다. 그래서 남은 여자들은 앗수르 이방인들과 결혼하게 되고 많은 혼혈인들을 낳게 되는데 그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다. (열하 17:1-24참조) 그래서 전통유대인들은 그들을 반유대인으로 대하는데 예수님은 이런 편견을 깨고 사마리아지역을 통과해서 여행을 하시고 (요한 4:3-5), 거기서 사마리아여인을 만나시며 (요한 4:7-42),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화를 인용하신다. (눅 10:30-37)

빌립은 스테반집사와 같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사도행전 6:1-6에서 집사로 선출된다. 빌립은 자신이 예수님께서 예전에 방문하셨던 지역과 같은 지역에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거기서 빌립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전했을 때 그 지역의 사마리아인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금방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빌립은 자신과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문화장벽을 넘어선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주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는지 잠시 생각해보자. 2001년 9월 11일에 일어난 미국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제일 먼저 생각나게 될 것이다. 비행기가 쌍둥이빌딩에 부딪치는 순간, 전 세계의 역사는 바뀌게 되었다. 그 후의 비참하고 참혹한 현장은 많은 기록들로 우리의 가슴에 영원히 남게 되었다. 하지만 이 사건이 테러리즘의 시작은 아니었다. 테러리즘은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만행이었다. 우리는 다만 911사건을 통해 처음으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안식처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님을 깨닫게 된 것이다. 더 이상 미국은 저 넓고 깊은 대서양과 태평양의 보호를 받는 완전한 안식처가 아님을 깨닫게 된 것이다.

오늘날 모든 대륙은 다른 대륙과 연결되어있다. 모든 나라는 다른 나라들과 붙어있으며 모든 문화는 다른 문화와 같이 공유한다.

나는 Khalil Jaloub을 2004년에 처음 만났는데 그의 생애가 참 흥미로웠다. Khalil는 Baghdad에서 태어나 모슬렘으로 자란 후 이라크를 떠나, 영국과 미국으로 유학을 갔으며, 그곳에서 그는 다른 종교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하였다. 처음으로 오클라호마주에 있는 한 침례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을 통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난 후 그는 곧바로 하나님을 영접하였고 후에 기독교인과 결혼하였다. 내가 이 성경공부교재를 쓰고 있는 지금, 그는 Plano, 텍사스주에 있는 한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일하고 계신다.

우리는 각 도시에서 우리와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과 살고 있다. 휴스턴에서만 100여개의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들이 살고 있다. 미국에서는 전체 인구의 18%인 4천 700만 명이 집에서 영어외의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중에 2천 800만 명은 스페니쉬, 200만 명은 중국어, 100만 명은 베트남어, 그리고 90만 명은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다. Detroit 는 중동지방을 제외하고 세계에서 중동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도시로 알려져 있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미국 내의 타민족 인구 증가가 여러 문제를 가져오고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이들은 미국의 안식처와 보호구역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기독교인의 눈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이다.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민족들의 이동은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기에 전례 없는 좋은 기회들을 만들어 주고 있다.

The Ethnic America Network라는 단체는 미국으로 이민 온 각 민족의 1세대와 2세대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전도를 위해 미국 내에서 활동 중인 60개 이상의 선교단체와 교단과의 깊은 연합을 위해 설립되었다. 교회는 더 이상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구 반대편의 선교지까지 갈 필요가 없게 되었다. 누구든지 자신의 안식처를 떠나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선교지가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식처에서 떠나게 하신다. : 평신도 사역 (8:4-8)

예루살렘을 떠나 처음으로 타 지역에 복음을 전한 사람은 바로 평신도이다. 사도행전 8:1절은 "사울은 스테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교회가 박해를 받다> 그 날에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박해받기 시작하여,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라고 박해의 결과에 대해서 설명한다. 사도행전 8장 4절은 "그러나 흩어진 사람들은 두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더욱 자세히 설명하면서 분명히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지만 평신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다.

12명의 사도들은 당연히 그들 스스로를 성직자라고 생각지 않았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나 산, 혹은 마을에서 선택하신 지극히 평범한 어부나 세리, 혹은 상인들이었다. (유다만 유다지역출신이다.) 하지만 이들은 초대교회 때 가장 목사직분에 가까운 역할을 했던 자들이었다.

그 후, 초대 교회가 시작되면서 기독교는 성직자와 평신도로 양분되었다. 성직자는 전문적인 사역자가 되면서 지위가 주는 영향력과 권위가 생겼다. 평신도들은 교회에서의 평범한 일들을 맡아서 하면서 전문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전문 사역자를 섬기게 되었다. 이런 사역의 차이는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기독교인들을 그들의 안식처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한정된 분야가 아닌 하나님 사역의 전 분야에서 다양하게 준비되기를 원하신다. 간혹 평신도들이 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르기 위해서 노력할 때, 자신의 권위에 위협을 느끼는 사역자나 교회 지도자들과 마찰이 생길 수 있다. 혹은 사역자들이 이 진리를 깨닫고 모든 평신도들을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훈련시키려고 할 때에, 주일에 예배만 참석하고 사역이나 봉사에 참여하지 않으며, 자신의 안식처를 벗어나기를 싫어하는 평신도들과의 마찰이 생길 수도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1세기부터 계속된 평신도들에 의한 선교운동에 대해서 많이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신다. 국가와 경제가 세계적으로 점점 더 밀접해짐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평신도들에게 자신들의 선교에 대한 열정과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의료계, 교육계, 전문직과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세계 어느 곳으로든지 자유롭게 다니면서 자신의 실력을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몇 천 명의 전문선교사보다는 몇 백만 명의 평신도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평신도나 사역자나 모두가 복음을 위해서 무장된 진정한 교회의 아름다움을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가르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안식처에서 떠나게 하신다: 하나님의 주권 (8:14-17)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역은 새로운 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최근 회사들에서 사용하는 광고전략, 사업발전모델, 조직운영등의 전략들을 많이 차용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은 사업운영의 관점에서 설명된다. 심지어는 전도전략도 일반회사의 마케팅전략을 바탕으로 운영되기도 한다.

우리는 항상 우리 스스로가 중심이 되어서 사역을 운영할 때 편안함을 느낀다. 하지만 만약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사역을 운영할 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빌립이 사마리아에 갔을 때 (행 8:4-8), 그는 그 땅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의 사역을 통해 많은 이들이 병을 고쳤고, 악의 영에서 해방되며, 많은 이들이 침례를 받았다. 나중에 사마리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보기 위해 베드로와 요한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구원을 얻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성령을 받도록 안수를 했었다.

여기서 잠시 혼돈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사마리아 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지만 성령은 아직 받지 못했다는 부분이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하는 사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은 서로 다른 부분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기독교인이 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령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님과 개인의 관계를 가지게 된다는 뜻이다. 시몬의 행동(행 8:9-24)이 바로 침례와 성령을 받는 것의 다른 점을 잘 말해주고 있다. 사마리아인들은 빌립과 사도들의 기적을 통해 병이 낫고, 침례를 받았지만 믿음으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진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 깨닫지는 못했었던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주체가 되어 편안함을 느끼는 신앙의 안식처를 벗어나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지만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는 곳으로 들어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안식처에서 떠나게 하신다 :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택한 곳 보다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곳으로 우리를 보내시도록 하심.(8:26-36)

난 가끔 우리가 얼마나 편한 선교지만을 선호하는가에 놀랄 때가 있다. 나와 내 아내는 Texas 출신이다. 1993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를 미네소타주로 선교사로 보내실 때, 내 친구들은 미네소타주가 텍사스주에서 1000마일이나 떨어져있으며, 일 년에 6개월은 겨울인 아주 추운 곳으로 간다는 사실에 굉장히 놀라워했다. 하지만 난 그들에게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내가 너희를 기후가 좋고 고향에서 가까운 선교지로 보내노라.”라는 성경구절은 없다고 말했다.

하나님은 빌립에게 남쪽 광야사막을 지나 가사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다. 빌립이 가사에 도착했을 때, 그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에디오피아의 높은 관리를 만나게 된다. 그는 내시였다. 이 내시가 유대인

이였는지, 아니면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인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나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처럼 완벽하지는 않았다. 더욱이 그가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었다 할지라도 그가 거세를 했다는 사실 때문에 그는 정통유대인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신명기 23장 1절에 의하면 누구든지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든지, 아니면 나중에 유대인으로 개종을 했던 시간에 거세를 한 사람은 완전한 유대인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여하튼, 그는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시하는 이사야 53장 말씀을 묵상하는 중이었다.

빌립은 내시에게 가서 말을 건네라는 성령의 말씀에 순종했다. 거기서 그는 내시가 이사야 53장 말씀을 읽는 것을 듣게 되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본문을 설명해달라는 내시의 부탁에 빌립은 이사야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예언을 완성시키셨다는 복음을 전하게 된다. (행 8:35) 만약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는 그 영향력 있는 에디오피아인을 기독교인으로 인도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장소로 보내신다. 2004년 초에 있었던 이야기이다. 어느 날, Heather Herschap라는 한 여학생이 WorldconneX (People, Church, entities and resources for Mission)라는 선교단체에 전화를 했다. 그녀는 전화 통화에서 자신을 Truett신학교에 재학 중인 신학생이라고 소개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디아선교사로 부르셨는데 선교단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했다. 그래서 나는 그녀를 직접 만나기 위해 Waco라는 도시로 직접 운전해갔었다. 그녀는 한쪽 팔밖에 쓸 수 없는 장애인으로써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불편한 몸이었으며, 심지어 언어장애까지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내가 지금까지 본 사람 중에 가장 빛나는 보석과 같은 사람이었다. 그녀는 어떻게 해서 인디아 선교를 결심했는지를 이야기했다. 어느 날, 텍사스 waco에 있는 한 교회에서 하나님은 그녀의 귀에 "India"라고 속삭이셨다는 것이었다. 그 후, Heather은 ProVision Asia라는 선교단체와 연결되어서 2005년에 드디어 인디아로 장애인선교를 위해 떠났다.

내가 미네소타에서 Chuck Friemel이라는 사람을 만났었다. 그는 해고를 당하기 전까지 항공교통 관제관으로 근무했었다. 그는 해고라는 시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는 신학교에 등록해서 공부하면서 교회개척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 후 그가 미네소타에 왔을 때, 선교 책임자는 그에게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지역 몇 곳을 보여 주겠다고 했다. 그러자 Chuck은 이렇게 대답했다. 선교 책임자가 원하는 곳을 다 돌아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신 지역은 Red Wing이라는 지역이라고 말했다. 그렇게 해서 1991년에 Chuck은 Red Wing지역으로 이사를 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Ice Skate를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면서 Hiawatha Valley 침례교회를 개척했다. 지금 그는 그 도시에서 가장 오래된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빌립을 사마리에 보내신 것처럼, 혹은 Heather을 인디아로 보내신 것처럼, 혹은 Chuck을 미네소타로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여러분이 상상도 못한 곳으로 보내실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안식처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거의 체험하지 못한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안식처를 벗어나 하나님을 따를 때에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그리고 그분의 임재와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 항상 신실하십니다.

질문

1. 여러분의 교회의 민족 구성은 여러분 지역의 공립학교의 민족구성과 비교해볼 때 어떤가요?
2. 여러분은 대부분 어디서 다른 인종과 문화를 접하게 되나요?
3. 평신도는 할 수 없지만 전문 사역자는 할 수 있는 사역은 무엇인가요?
4.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이나 장소로 인도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언제?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나요?

[참고]

빌립

신약성경에는 동명이인이 많다. 오늘 본문에서 다른 빌립을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과 혼돈하지 않아야 한다. (마태 10:3, 요한 1:43-51, 6:5-7, 12:21-22, 14:8-9). 또한 사도행전의 빌립과 헤롯의 동생 빌립과도 혼돈하지 않아야 한다. (눅 3:1-2; 마태 14:3)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빌립은 사도행전 6장 1-6절에 처음 등장한다. 그는 교회에서 과부들을 돕는 사역을 하도록 선출된 일곱 집사 중 한명으로 사도행전 6장 3절에 의하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이었다. 사마리아와 가사지역의 전도여행을 마친 후, 그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사에서 북쪽으로 20마일 떨어진 아소도지역으로 가게 된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가이사랴지방에 정착하기까지 그의 전도 여행은 계속 되었다. 그곳에서 그는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어 자식을 낳는다. 20년 후, 누가와 바울은 빌립을 방문하기 위해 가이사랴에 갔는데 거기서 그의 딸 넷을 만나게 되며 그들이 처녀로 예언하는 자들이었다고 기록했다. (행21:8-9)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 내가 사는 지역의 인구통계를 연구한다. 어떤 민족들이 내가 사는 지역에 소속되어 있나?
- 내가 사는 지역을 차로 운전하며 다니면서 타민족들이 운영하는 가게나 회사들이 있는지 돌아본다. 어떤 민족들이 찾을 수 있는가?
- 이번 주에 나와 타문화권의 사람이나 타민족의 사람을 만난다.
- 타민족 교회를 찾아보고 그들의 예배에 참석해 본다.
-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를 구한다.
- 단기선교를 신청한다.

| | |
|--------------|---|
| [6] | . . . |
| 9:10-28 | <p>학습주제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는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과 예수님을 믿기에 가장 부적합해 보이는 사람들까지도 교회공동체에 포용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p> |
| 9:1-31 | <p>탐구질문 어떻게 하면 교회가 효과적으로 소외된 자들을 교회공동체로 포용할 수 있는가?</p> <p>교육목표 어떻게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핍박자였던 사울이 기독교 공동체에 포용되었는가를 공부하고, 우리 주위에 소외된 자들을 공동체에 포용하는 계획 세우기.</p> |

들어가기

나는 Ahmed와 같이 앉아서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Ahmed는 이스탄불에서 태어났다. 그는 이슬람을 믿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교육받고 자랐다. 청소년때 그는 알라신을 믿는 열성신자였다. 그리고 그는 청년때 동유럽으로 가서 이슬람선교사로 전도하기 시작했다. 그가 아는 기독교는 이슬람에서 배웠던 것과 영화를 통해서 본 것이 전부였다. 그에게 기독교는 비윤리적이고, 물질주의며, 욕심과 부패가 심한 종교였다.

Ahmed는 동유럽에서 대학을 다녔는데 거기서 그는 2년짜리 단기선교종인Lori라는 Texas출신의 한 여성을 만나게 된다. Lori는 Ahmed가 다니는 대학의 도서관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녀는 Ahmed와 성경공부를 위해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고 Ahmed는 난생 처음 성경을 선물로 받았다. Lori는 Ahmed가 처음으로 만난 신실한 기독교인 이었고, Lori에게서 배운 성경공부는 그의 생애 첫 성경공부였다. Lori와의 성경공부를 통해 그는 예수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구원을 받았다.

Ahmed의 가족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가족에게서 추방당했고 그때부터 고난과 핍박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Ahmed는 미국으로 도주했고 Lori의 부모님은 그를 양아들로 입양했다. 지금 32살의 Ahmed는 Texas의 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다. 그는 WorldconneX에 있는 나를 찾아왔고, 어떻게 하면 자신이 살았던 이슬람지역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았다.

Ahmed는 예수님을 부인했다가 나중에 신실한 기독교인이 되었던 사울과 많은 부분에서 공통점을 가졌다. 만약 누군가 사울이나 Ahmed의 회심을 믿지 않고 그들을 포용하지 않았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소외된 자들을 포용할 때의 위험부담 (9:10-12)

만약 기독교 공동체에게 가장 위험한 사람을 꼽으라면 그 사람은 바로 다소사람 사울이었을 것이다. 그는 야망으로 가득 찬 사람임을 스스로 인정했다.(빌립보서 3:2-6; 갈라디아서 1:13-14). 그는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었고, 로마시민이었다. 특히 그는 예루살렘에서 가장 훌륭한 가말리엘로부터 최고의 개인교육을 받으며 자랐다(사도행전 22:3). 그는 바리새인의 열성당원이었고 그로인해 그의 동료들보다 더 빨리 정치적 힘과 종교적 권력을 얻을 수 있었다(갈라디아서 1:13-14). 그는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옆에 있었고, 그에게 돌을 던지던 자들의 옷을 대신 들고 있었다. (사도행전 7:58) 그 후, 그는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잔인한 핍박자가 되었고, 그의 잔인성으로 인해 많은 성도들은 흩어져 도망가게 되었다. (8:1;9:1) 그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다메섹의 성도들까지 체포하고 초대교회를 붕괴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던 중이었다.

사울은 야망과 적대감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떠났을 때 그의 나이는 어림잡아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이었을 것이다. 야망과 당당함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다메섹을 향해 떠났던 그는 다메섹에 도착할 때는 혼란 속에 장님이 되어서 도착했다. 오는 길에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의 음성을 들었다. 그리고 갑자기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고 그는 땅에 엎어졌다. 다시 일어났을 때, 그는 더 이상 앞을 볼 수 없었다. 그래서 그와 함께 했던 자들이 그의 손을 끌고 다메섹으로 갔다. (9:1-9)

사울이 다메섹에 도착했을 때, 그는 곧은 길가에 있는 유다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고, 거기서 그는 자신을 도와줄 누군가를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다.

다메섹은 고대도시이다. 다메섹은 세계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거주한 도시이다. 갈릴리 북동쪽 60마일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로써 이집트와 아라비아 그리고 메소포타미아간의 무역을 연결하는 중요한 상업도시였다. 오늘 날까지 다메섹의 바자시장을 통해 다메섹의 음식, 음악, 그리고 볼거리들이 전해져 오고 있다. 다메섹에서 사울이 장님이 되어서 도움을 기다리며 묵었던 집은 아직도 현지에 존재한다. 하나님께서는 다메섹에 있는 그의 제자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우리는 아나니아가 어떤 인물인지 모른다. 여기에 나오는 아나니아는 사도행전 5:1-6절에 나오는 성령에게 거짓말을 해 자신의 아내와 함께 죽었던 아나니아와는 다른 인물이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아나니아는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피해 도망 나와 다메섹에서 거주하게 된 신자이다.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특별한 지시를 내리셨다. 가서 다소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복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라고 하셨다. 이보다 더 위험한 임무는 없었다. 하나님은 그에게 사울이라는 핍박자에게 들리지 않도록 숨어 있으라고 지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를 찾아 복음을 전하라고 지시하신다.

만약 아나니아가 이런 하나님의 위험한 지시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그렇다면 아마 사도행전도, 2/3분량의 신약성경도 없었을 것이다.

만약 Lori가 자신의 성경공부에 이슬람선교사, Ahmed를 초청하지 않았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만약 Lori의 부모가 그를 양자로 입양하지 않았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앞으로 Ahmed는 모슬렘 지역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게 되겠는가?

소외된 자들을 포용할 때의 분별력 (9:13)

소외된 자들을 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위험을 감수한다는 것이 결코 우리가 우둔하고 미련해 지라는 뜻이 아니다. 위험부담을 감수할 때는 정확한 분별력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가 자신에게 주어진 위험한 임무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에 대해 꾸짖지 않으셨다. 아나니아는 사울을 만나기 전에 이미 사울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열린 마음과 눈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위험부담을 기꺼이 감수했다.

사람을 포용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금방 지도자의 위치로 임명한다는 뜻이 아니다. 모임에 포용된 사람은 지도자의 위치에 오르기까지 그에 합당한 영향력과 신용을 얻어야 한다. 다소사람 사울은 금방 사도 바울이 되지 않았다. 그가 사도 바울이라는 지도자의 위치에 오르기까지는 몇 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했다.

사울은 다메섹을 떠나 아라비아로 가서 거기서 3년 동안 수련을 했고, 그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예루살렘에서 그는 2주 동안 베드로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만났다 (갈라디아서 1:13-24). 그 후, 사울은 그의 고향, 다소로 갔고 바나바는 거기서 그를 만나 안디옥 교회를 위해 같이 사역할 것을 권했다. (사도행전 11:19-26) 안디옥 교회에서 일 년간 성경공부를 인도했고 거기서 사울은 바나바와 함께 그의 첫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었다.(13:1-3) 나중에 바울은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새신자에 대해서 조언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 했다.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딤후 3:2-6)

소외된 자들을 포용할 때의 순종 (9:14-17)

우린 항상 사랑과 열정이 넘치는 삶을 살기 원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우리가 사랑하기 쉽고 우릴 사랑해주는 사람들만 사랑한다. 그래서 낯선 타인이나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선 우리의 감정만으로는 할 수 없다.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순종이 필요한 것이다. (마태 5:46-47)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난 것은 어떤 불타는 사랑의 열정 때문에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그를 만난 것이 아니다. 그가 사울이라는 기독교인의 원수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가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 오직 말씀에 순종해서 그에게 가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예수님의 제자로써 그는 이미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순종하겠다는 결심을 한 상태였다.

이런 순종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체의 모습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뜻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조건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하인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무조건 따르도록 지시한 모습을 통해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모범을 보이셨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였다.” (요한 2:5)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마태 28:19-20)라는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라고 강조하셨다. 우리는 지식을 더 중요시 여긴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천을 더 중요시 여기셨다: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세대인지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한다. 복음을 한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 모슬렘이나 불교, 또는 힌두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다. 대부분의 이들이 사는 지역을 “10과 40의 창”(10/40 Window)라고 부른다. 이 지역은 서아프리카에서 아시아까지의 지역을 말하며 정확하게 지도에서 볼 때 위도 10도와 경도 40도를 중심으로 한 지역이다. 이 지역으로는 세계 전체 선교지원의 2.5%정도의 선교지원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나머지 97.5%는 이미 복음이 전해진 나라로 선교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선교대상에서 소외된 수천만 명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는데 우리는 정말로 말씀에 순종해서 제대로 된 선교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힌두교, 불교, 모슬렘 커뮤니티는 어떠한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소외된 자들을 포용할 때의 용기 (9:18-28)

사울이 이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바로 용기와 격려였다. 그와 같이 다메섹으로 가던 사람들 중에는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과연 누가 그를 도와줄 수 있었겠는가?

장님이 된 사울은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채, 길가에 있는 유다 집의 방구석에서 어두운 가운데 홀로 있었다. 그러나 그는 환상 속에서 아나니아라는 낯선 사람이 찾아와서 그를 도와주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진짜 아나니아가 그에게 왔을 때 그가 누군지 굳이 설명이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왜냐면 사울은 이미 그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나니아와 사울이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자세한 대화의 내용을 알 수는 없다. 하지만 대충 어떤 중요한 이야기들을 나누었는지는 알 수가 있다. 아나니아는 먼저 사울에게 손을 얹고 안수를 했다. 안수 자체에 어떤 마술과 같은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거기엔 다른 어떤 특별한 것이 있다. 아나니아의 손길이 느껴지는 순간, 사울은 아나니아가 자신을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인정의 손길”을 느꼈다. Touching과 포용은 인정을 뜻한다.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성령의 중요성을 설명했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의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아나니아의 말과 그의 손길, 그리고 그의 함께함은 사울에게는 잃어버렸던 시력을 다시 찾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했다. 실제로 사울은 그 후로 평생 동안 안 좋은 시력으로 고생했다. (갈라 4:15, 6:11; 고후 12:7-9)

사울은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곧바로 침례를 받았다. 침례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중요한 상징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침례의 중요성과 의미를 무시한다. 하지만 예수를 따르는 자로써 침례란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과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과 같은 형제가 된다는 의미도 함께 한다. 1세기 초대신자들에게 침례란 아주 중요한 것이었다. 침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먼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신자가 되었다는 것과 모든 믿는 자들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신자가 되었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사울은 아직까지는 예루살렘의 신자들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같은 형제로써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먼저 그를 의심했다. 그들은 자신의 친구와 가족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며 아주 잔인한 박해를 했던 핍박자 사울을 상대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바나바는 그에게 기회를 주었다.

바나바도 초대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는 특히 역려와 사람에 대한 깊은 신뢰로 잘 알려진 교회 지도자였다. 그의 이름은 “격려의 아들” 혹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다. 그는 Joses나 Joseph으로도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레위족속이고 Cyprus섬 출신이며 사도행전 4:36-37절에 자신의 땅을 팔아 교회에 헌금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다. 그가 바나바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도 아마 그의 꾸준하고 성실한 격려의 은사 때문이었을 것이다.

바나바는 기꺼이 자신의 명성이 나빠질 위험을 감수하고 회심했다고 주장하는 초대교회의 가장 무서운 적, 사울을 만났다. 바나바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누구든지 공평한 기회는 주어져야 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바나바는 사울을 위해서 대신 사도들에게 그를 소개했다.

말씀에 “맞아들여...”라는 의미는 바나바가 얼마나 사울을 위해 헌신되었는지를 잘 표현한다.(9:27) 헬라어로 “맞아들여”는 Epilambano라는 단어로써 마태복음 14장 31절에서 베드로가 물위를 건다가 빠졌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일으키실 때 쓰였다. 또한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에서도 쓰인 동일한 단어이다. 사울을 격려하고 이끄는 바나바의 결심은 이처럼 깊은 헌신이었다.

그리고 이런 그의 깊은 헌신은 그가 나중에 사울을 안디옥에 데리고 간 사실을 통해 더욱 확신 할 수 있다. (사도행전 11:25-26) 바나바는 안디옥에 있는 교회에 가서 그곳에 성장하는 교회를 조사하라고 파견된다. 그가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목격했을 때 그는 사울을 떠올렸다. 그리고는 사울을 찾아서 Cyprus까지 갔었다. 그리고 그의 사울을 향한 헌신으로 인해, 바나바와 사울은 1차 전도여행을 같이 떠나게 되었다.(13:1-3) 바나바의 격려와 위로가 없었다면 사도바울은 없었을 것이다.

격려는 하나님의 사역에 꾸준히 필요한 요소이다. 실제로 요한복음에서 성령을 표현하는 보혜사(Paraklete)라는 말은 “격려자”, “위로자” 혹은 “용기를 주는 자”라는 뜻이다.(요한 14:16) 하나님은 항상 자신의 자녀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신다. 반대로 원수는 항상 우리를 낙심시키고 절망하게 하는 말을 한다. 기독교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바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과 같이, 모이는 일을 그만 두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 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니다.” (히브 10:25)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는 반드시 밖으로 떠돌고 소외된 자들을 믿음의 공동체로 이끌고 포용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삶속에서 역사하시며 심지어 복음을 방해하는 원수들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구속역사는 가장 낮고 천한 우리들까지도 그의 가족으로 여겨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시는 놀라운 역사이다.

질문

1. 지난 3년간 등록된 새신자 중에 지금까지 활발하게 교회에서 사역과 봉사를 하는 신자는 몇 명이나 되는가?
2. 당신이 기독교인이 되었을 때, 누가 당신에게 믿음생활을 시작하는데 가장 큰 도움과 격려, 그리고 영향력을 주었는가?
3. 우리교회는 새신자를 위해 어떤 follow-up 사역들과 상담을 제공하는가?
4. 우리교회는 새신자를 어떤 방법을 통해 얼마나 효과적으로 그들을 공동체에 포용하는가?

[참고]

Lottie Moon

Lottie Moon은 침례교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이름이다. 그녀는 1873년에 중국 선교사로 임명되었고, 1912년 12월 24일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죽기 바로 전까지 남은 모든 돈을 털어서 배고픔에 굶주린 그녀의 중국친구를 위해 썼다.

침례교인들 중에 WMU 선교교제를 공부한 분들은 로티문의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녀가 청소년 시절에 복음을 심하게 거부했다는 사실은 모른다. 청소년시절에 그녀는 기독교인이 되기가 거의 불가능한 사람으로 여겨졌고 아무도 그녀가 나중에 유명한 선교사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다.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 당신의 주위에 가장 예수님을 믿기에 힘들다고 생각되는 사람의 이름을 3-4명 정도 적어본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매일 기도한다.
- 다른 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본다. 그리고 매일 당신이 다른 이들에게 줄 수 있는 위로와 격려들을 “격려노트”에 적어본다.
- 당신의 생활 속에서 복음을 가장 거부하는 사람을 기억해 본다. 당신은 어떻게 이 사람과 친하게 지낼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겠는가?

| | |
|--------------|---|
| [7] | |
| 11:1-18 | <p>학습주제 선교적 교회는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명에 동참하기 위해서 방해하는 모든 장벽들을 과감히 뛰어 넘고 온전히 그 분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다.</p> |
| 10:1 - 11:18 | <p>탐구질문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려는 교회를 방해하는 장벽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p> <p>교육목표 완전한 헌신과 함께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부르심에 헌신하려고 할 때 우리가 극복해야 할 우리 앞을 가로막는 장벽들이 무엇인지 알아본다.</p> |

들어가기

“나는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책(성경을 말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모슬렘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계속 그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 책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드려 왔습니다.” Texas Brownwood에 있는 Howard Payne 대학에서 다문화 선교학을 가르치시는 Mary Carpenter 교수와 그의 4명의 제자가 중동 단기선교를 갔을 때 만났던 한 모슬렘 남자가 한 말이다. Mary 교수와 그의 제자들은 거리전도를 위해 시장과 가게들을 돌아다니다가 한 모슬렘 남자를 만났고 그 남자는 이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차를 대접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4시간에 걸쳐서 그는 성경에 관해 질문했고 학생들은 그의 질문에 대답해 주었다

Mary 교수와 그의 제자들은 그 날 하나님께서 지구 반대편의 다른 문화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한 남자의 마음을 열기 위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지 경험할 수 있었다. 그들이 만약 문화라는 장벽을 뛰어넘어 중동으로 가지 않았다면 아마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를 체험할 수 없었을 것이다.

베드로와 가이사랴에 사는 고넬료와의 이야기는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오늘의 핵심본문인 사도행전 11:1-18은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서 일어나 사건을 요약한 것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그리스도를 따르던 사람들은 유대인들만 구원 받을 수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일어난 사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유대인들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이방인들에 대한 선입견을 옴바에서의 환상과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는 계기를 통해 완전히 깨뜨리셨다. 그리고 이 사건은 예루살렘 공회에서 논의하게 되었다 (15:1-21).

그 결과, 일세기 초대교회는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 그리고 모든 언어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번 베드로의 경험을 통해 볼 때, 21세기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과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우리를 가로막는 장벽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그 장벽들을 극복할 수 있는가?

본문 (11:1-18)

가장 큰 장벽은 우리 안에 있다.

나는 때때로 외적인 어려움으로 선교를 할 수 없는 교회나 사람들을 방문한다. 이들의 대부분은 금전적인 어려움이 선교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그냥 간단히 선교를 할 충분한 돈이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1세기 초대교회에게 금전적인 어려움은 선교를 못하게 하는 장벽이 아니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금전적으로 가장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선교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인 경우는 많다.

우리는 종종 외적 조건과 환경이 선교를 방해하는 가장 큰 장벽이라고 말한다. 사실 가끔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1세기 초대교인들만큼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운 장벽들 속에 있었던 교인들도 없었다. 그들은 항상 심한 박해를 받았고, 그들이 가는 전도의 길은 멀고도 험했으며 위험했고 특히 항상 가난한 고난의 길이었다. 하지만 이 모든 외적인 어려움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들을 막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이런 외적인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바로 그들 안에 있는 내적인 문제들이었다.

우리의 관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역을 막는 장벽이 된다.

베드로의 환상과 경험은 그가 오랜 세월동안 가지고 있던 유대인의 관습을 깨뜨렸다. 독실한 유대인으로써 베드로는 항상 조상 때부터 전해오던 식사습관을 철저히 지키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그런 모든 관습을 고치게 하였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큰 장벽은 바로 관습이라고 하셨다. (마가 7:1-8) 바울도 말하길 그가 그토록 예수님을 따르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전통적인 관습 때문이라고 했다. (갈라 1:13-14)

관습이라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라는 말이 아니다. 우리의 관습과 전통은 때때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한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살후 2:15) 라고 가르쳤다. 하지만 우리의 관습과 전통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방해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막는 장벽과 걸림돌이 된다. 보통 전형적인 침례교회는 이렇게 말한다. “We never did it that way before” (우리 그런 방법으로 해보지 않았어요.)

마치 뮤지컬 “지붕위의 바이올린”에서 아버지 테비가 새로운 사건으로 오래된 관습에 도전 받아 힘들어했던 것처럼, 우리도 늘 오랜 관습과 빠르게 발전하는 새로운 세상과의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할 때 관습을 유지하려 애쓴다.

우리의 편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역을 막는 장벽이 된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을 방문했을 때, 유대인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편견을 깬 있어야 했다. 그리고 이 일이 베드로에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였는지는 나중에 고넬료와 그의 친구들에게 했던 말에서 알 수 있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28)

우리 대부분은 자신들의 편견에는 장님이 된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와 다른 생김새나 옷차림, 말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의 편견으로 그들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편견이라는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지 않으면, 항상 다른 사람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지 않게 되고, 결국 편견이라는 문제를 극복할 수 없게 된다.

우리의 기도부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역을 막는 장벽이 된다.

하나님께서 옴바에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 주셨을 때, 베드로는 곧바로 기도했다.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베드로는 기도하기 위해서 옥상에 정오쯤에 올라가 있었다 (10:9). 만약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지 않았다면 그는 환상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환상을 보지 못했다면 아마 그는 가이사랴에 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복음은 이방인에게 전해지지 못한 채 계속 유대인의 문화와 관습 속에 머물러 있었을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 있는 가능성을 주는 열쇠와 같은 것이었다.

사도행전 10:1-6절은 우리에게 고넬료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알려준다. 고넬료는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이는 이방인 로마장교라는 것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백부장은 100명의 군인을 인솔한다. 고넬료의 위치는 그만큼 중요하고 영향력을 지닌 장교였다. 그리고 그는 또한 "믿음이 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10:2). 그 결과 그는 유대교 회당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다. 그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나 공식적으로 유대인이 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겼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10:2)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가 기도하고 있던 오후 3시쯤에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옴바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데리고 오라는 명령을 했다 (10:3-6). 만약 고넬료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는 천사에게 명령을 받지 못했을 것이고 베드로에게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지 못했을 것이다.

신약성경은 우리에게 기도는 모든 장벽을 뛰어 넘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필요한 요소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런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매일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와는 다른 차원의 기도를 말한다. 우리가 매일 습관적으로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축복을 구하는 간청기도이다. 하지만 1세기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기도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누는 방법이었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통로였다.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거나 주신 축복에 감사를 드리는 기도가 잘못되었다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마태 6:10)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바울이 감옥에 있었을 때 그는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기를 자신이 풀려나기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기....."를 기도하라고 간구했다 (골로 4:3).

몇 년 전, 나와 내 아내가 서울을 방문했을 때, 우리는 새벽 6시에 새벽기도회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다. 우리기

본당에 들어선 순간 그곳에는 이미 천 명 정도의 신자들이 모여서 조용하고 경건하게 기도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기도는 조용했다. 그날 아침 새벽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었다.

한국의 첫 개신교 교회는 1884년에 세워졌다. 그리고 1984년까지 무려 30,000 교회들이 세워졌다. 그리고 2000년까지 60,000교회들이 세워졌다. 현재 한국은 세계에서 2번째로 해외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국가가 되었고 10,000여명의 해외 선교사들이 세계각지에서 선교를 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의 이런 부흥과 발전의 원동력은 바로 기도의 헌신 때문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역을 막는 장벽이 된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환상(비전)이다.(사도행전 10:9-16; 11:4-10) 베드로가 옴바에 있는 지붕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는 하늘에서 각종 야생동물이 담긴 보자기같은 그릇이 내려오는 환상을 3번이나 보았다. 그리고 그 환상 중에 그는 “베드로야, 일어나 그것들을 잡아먹으라 (10:13)” 는 명령을 받았다. 처음 이 환상을 받았을 때, 베드로는 도무지 이 환상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고 자신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알아내는 것은 결국 베드로에게 달렸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그에게 가이사랴에 오길 원한다고 말을 전했을 때, 그는 곧바로 그의 환상이 무슨 뜻이었는지 깨닫게 되었다. 만약 베드로가 환상을 보지 못했었다면, 그는 아마 고넬료의 초청을 거절했을 것이고 기독교선교의 미래는 아마 바뀌었을 것이다.

2004년에 WorldconneX 선교단체를 시작했을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시작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서로 연결시킨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의 질문을 물어 보면서 사역을 시작한다.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인가?” “당신의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인가?” 우리는 곧, 이 질문을 했을 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과 교회들은 자신들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많은 교회들이 비전 선언문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똑바로 알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다. 나와 우리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찾는 것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비전을 세우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이다.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 안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서 시작된 것이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향으로 우릴 인도한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겪었던 사건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준다. 그 당시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가기를 원했지만 성령이 그들을 막았다. 그래서 바울은 드로아로 갔고 거기서 그는 마게도나 사람이 그에게 와서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게 되었다. (16:6-10)

하나님은 각 성도들과 각 교회에게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각자만의 비전을 주셨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치셨던 교훈이었다. (요한 21:15-23).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나 너는 나를 따르라.”(요한 21:21)라고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서는 단계마다 필요한 만큼의 비전을 우리 앞에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한다. 아무도 우리의 삶

이 어디로 가는지, 혹은 얼마나 오래 살 것인지 인생여정을 전부 아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먼저 그의 비전을 바라보는 우리의 지각을 뚜렷하게 하시고, 믿음과 봉사의 길에 전환점을 주신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자신의 비전과 교회의 비전을 알 수 있는가? 당신은...

- 1) 먼저 당신의 비전보다 하나님의 비전을 사모해야 한다.
- 2) 헌신적으로 기도해야 한다.
- 3) 말씀을 공부해야 한다.
- 4) 당신과 당신교회에게 어떤 독특한 특징이 있는지 알아야 한다.
- 5) 하나님께서 세계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6) 다른 성도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한다.
- 7) 하고 있는 사역에 순종해야 한다.
- 8) 마음에 귀 기울여야 한다.

우리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역을 막는 장벽이 될 수 있다.

지붕에서 베드로가 본 환상은 오히려 베드로에게 혼란을 가져왔다. 우리는 베드로가 다음 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른다. 그게 어떤 계획이었는지 베드로는 그 계획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명하신 계획에 순종했다 (사도 11:11-12). 가끔 우리의 계획은 전도에 방해가 될 때가 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을 방해받기에도 너무 바쁘게 산다.

예수님께서는 가끔 예상치 못한 방법과 때에 말씀하시고 사역을 하셨다. 예를 들어 우물가의 여인(요한 4), 중풍 병자(마가 2:1-12), 귀신들린 자(마가 5:1-20), 혈루증을 앓는 여인(마가 5:25-34), 그리고 장님 바디메오(누가 18:35-43), 그리고 많은 사역들이 있다.

우리의 불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역을 막는 장벽이 될 수 있다.

베드로가 그의 환상의 뜻을 깨달은 순간, 그는 지체하지 않고 순종했다 (사도행전 10:19-23; 11:12). 우리는 가끔 너무 지식을 순종보다 중요시 여기는 나머지, 성경을 포함하여, 지식의 자만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당시의 종교지도자들은 성경을 잘 안다는 자만에 빠져 예수님을 믿지 못했고 그분께 순종하지 못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마치시면서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마태 7:24)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마지막 만찬때 예수님은 “너희는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요한 13:17)라고 말씀하셨다.

의미와 결단

각 신자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장벽들이 자기 자신 안에 있는지 먼저 찾아봐야 한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관습과 편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깊은 기도로 그분의 비전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신다.

질문

1. 당신의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관습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2.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비전은 무엇인가?
3.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에 주신 비전은 무엇인가?
4. 최근 당신 주위에서 편견을 목격한 경험이 있는가?

참고

이방인

사도행전 11:1절과 18절에서 번역된 이방인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Ethne라는 단어이다.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Great Commission (지상명령: 마태 18:19-20)에서도 사용하셨다. 하지만 이 구절에서는 이 단어를 “민족”으로 번역했다. “ethnic(민족의)” 또는 “ethnicity(민족성)”라는 단어가 바로 Ethne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 공회를 진행할 때 아모스 9:11-12절을 인용하면서 이 단어를 사용했다 (사도행전 15:17). 이 용어의 사용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그의 구원사에 모든 민족과 국가를 포함하고 계심을 명확하게 표현한다. 요한도 이 단어, Ethne를 사용하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설명했다.

“모든 나라에서 온 무리,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계시록 7:9)

| | |
|---|--|
| [8] | . . . |
| <p>사도행전 11:19-26</p> <p>사도행전 11:19-26</p> | <p>학습주제 선교하는 교회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길을 찾는다.</p> <p>탐구질문 오늘날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면, 교회 다니는 신자들을 뭐라고 부르겠는가?</p> <p>교육목표 교회가 더욱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격려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살펴본다.</p> |

들어가기

나는 한 원로목사님께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여쭙어 보았다. 스투어드 원로목사님께서서는 지난 30년간 윈스콘신의 브룩필드에 자리한 Elmbrook 교회에서 사역하시면서 200명 정도의 교회를 5000명 규모의 교회로 성장시키셨다.

목사님께서서는 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다. 목사님께서 처음 Brookfield에 오셨을 때 사람들에게 기독교인이냐고 물어보면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기독교인이라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냐고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은 자신들이 제자가 아니라고 대답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제자로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다고 한다.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던 신자들은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공부했듯이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도망 온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평신도였다. 안디옥은 시리아의 수도로써 예루살렘에서 300마일 북쪽에 자리한 도시이다. 사도행전 13:14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1차전도 여행 중 처음으로 교회를 개척한 도시가 나오는데, 이 도시의 이름도 안디옥이다. 하지만 이 안디옥과 오늘 본문의 안디옥은 서로 다른 도시임으로 혼돈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으로 교회를 개척한 안디옥은, 비시디아의 안디옥으로, 터키의 중앙에 자리한 도시이다. 시리아의 안디옥은 동과 서가 서로 교차하는 도시로, 도덕적으로 문란한 항구도시였다. 안디옥은 “동쪽의 여왕”의 도시로 알려졌고, 로마왕국에서 3번째로 큰 도시였다.

본문 (11:19-26)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야 한다.

로마의 박해와 핍박으로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을 때, 그들은 갈릴리 북쪽 지중해에 있는 작고 긴 땅의 항구도시, 베니게와 베니게해안에서 60마일정도 떨어진 지중해의 큰 섬, 키프로스도 도망을 갔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11:19), 그곳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하지만 키프로스와 구레네에서 안디옥으로 온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제자들과는 달리, 이방인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NASB나 NIV에 번역된 “Greeks” 혹은 “Grecian” (그리스사람) 이라는 단어는 Ellenistas라는 단어로써 영어단어에 Hellenistic(헬레니즘)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에서 유래되었다. 니콜라와는 다르게 이 그리스사람들은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았었다. 만약 그들이 개종을 했더라면 예루살렘교회는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아무튼, 아주 많은 수의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우리의 대부분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할 때, 무의식적으로 초청대상을 걸러서(screening) 교회로 초청한다. 우리는 우리교회에 잘 적응 할 수 있는 사람이나 혹은 우리와 비슷한 생각, 문화, 언어, 생활수준을 가진 사람들만을 교회로 초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는 대부분 교회 사람들과 비슷한 이들을 교회로 인도한다. 그렇지 않은가?

그러나 우리가 우리와 다른 문화와 인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얘기하고자 할 때, 오히려 가운데에 많은 변화와 기적들을 경험하게 된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와 교회를 비판할 때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슬렘사람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해 높게 평가를 한다. 단지, 그들은 예수님이 진정 누구인지,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모를 뿐이다. 베니게와 키프로스도 갔던 제자들은 그리스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했다. (11:20) 그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어떻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지와 어떻게 죽음에서 부활하셨는지를 확실히 말하였다.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하자, 그들은 즉각 복음에 반응을 보였다.

한번은 미네소타 주의 Rochester에 있는 한 식당에서 뷔페를 먹기 위해 줄을 서고 있었다. 내 뒤에는 Stephanie라는 30대중반의 한 여성이 서 있었다. 그날 나는 그녀의 복음을 전하는 능력과 열정에 큰 감동을 받았다. 그녀와 그녀의 남편은 미네소타에 있는 하키선수들에게 봉사활동을 하면서, 한 번도 교회에 가본 적이 없는 젊은이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있었다.

그 식당에는 한 젊은이가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는 뷔페에서 손님들에게 고기와 햄을 잘라 나누어 주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 젊은이는 두 팔에 문신이 있었고 귀고리와 코걸이를 한 젊은이였다. 내 차례가 되었을 때 난 그 젊은이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고기와 햄 몇 점을 잘라달라고 요구했다. 솔직히 난 속으로 그 젊은이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을 식당에서 쓸 수가 있지? 저렇게 문신과 코걸이를 하고 직장을 잡을 수 있을까?” 하지만 내 뒤에 있던 Stephanie는 그 젊은이에게 문신과 코걸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물어보며 말을 걸었다. 그녀의 그런 질문에 그 젊은이는 금세 힘찬 목소리로 그의 문신과 코걸이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 그리고 몇 분 후, 그 젊은이는 그녀가 전하는 복음을 집중해서 듣고 있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와 사역을 목격했을 때, 그는 영적으로 건강함의 중요성을 깨닫고 곧바로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11:23). 만약 건강한 영적 기초가 튼튼하게 세워지지 못했었다면, 안디옥에서 있었던 엄청난 부흥과 뜨거운 선교운동은 (13:1-3) 아마 없었을 것이다. 우리가 우리 세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 번 분명히 배워야 한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단 3번만 언급되었다. (사도 11:26, 26:28, 그리고 뵤전 4:16)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쓰지 않으셨다. 믿는 자는 그저 “주의 도”를 따르는 자로 표현했다. (사도 9:2, 19:9, 23:24-22, 22:4) “Disciple”(제자)라는 단어는 신약성경에 많이 언급된 단어이다. 제자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자주 사용하신 단어로써 그를 따르는 자들을 제자라고 부르셨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안디옥에서 믿는 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처음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들은 “주의 도”를 따르는 작은 예수라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그리고 신자들은 늘 예수님을 전했고 “주의 도”를 항상 따랐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계속 불리게 되었다.

그러나 오늘 날,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많은 다른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다. 어떤 의미로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 또 어떤 의미로는 그냥 어릴 때 침례를 받은 사람이나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때도 있다.

안디옥에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의 영향력을 보면서, 그들이 제자의 참 뜻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철저하게 바꾸셨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이 그들이 “그의 도”를 따르던 이유였다. 그분을 따르는 제자로써, 그들의 삶이 철저하게 바뀌지 못했다면 그들은 아마 안디옥에서 많은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을 것이다.

미국에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많은 이유 중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된 삶을 비그리스도인들이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악의 이유 중 하나는 교회지도자들과 기독교인들의 도덕성과 윤리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비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미지근한 삶을 사는 것도 문제이다. 세상과 교회가 서로 다를 바 없이 같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추수할 때를 기다려야 한다.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낸 사건을 보고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아마 안디옥의 그리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어떤 잘못된 교리나 가르침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바나바를 보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 우려 때문에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 사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전략적으로 “추수할 곡식”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기 때문이다.

추수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예화 중에 하나였다. (마태 9:37-38; 눅 10:2; 요한 4:35).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녁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요한 4:35) 예수님은 여기서 하나님을 “추수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하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 (눅 10:2).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추수할 곡식을 어떻게 찾고 어떻게 추수할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치셨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절적인 하나님이시다. 이 뜻은 하나님의 창조와 그의 말씀을 통해 씨를 뿌릴 때가 있고, 또 곡식을 수확할 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혼을 추수할 때가 있음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추수의 계절이 있는데 이는 각 민족과 나라, 그리고 각 족속마다 정해진 때가 있다는 뜻이다. 현재 우리는 남미와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에서 추수의 계절이 임한 것을 보고 있다. 하지만 이 추수의 계절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선교운동이 처음으로 시작된 안디옥은 현재 완전한 모슬렘지역이 되어버렸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요한 9:4)라고 말씀하셨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추수할 일꾼들을 격려해야 한다.

사도들이 안디옥에 보낼 사람으로 바나바를 정했을 때에, 최고의 격려자를 선택했다고 믿었다.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다. 그는 키프로스출신의 레위지파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의 성품과 행실로 얻은 이름은 바나바였으며 그 뜻은 “격려하는 사람”이었다 (4:36).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했을 때에, 그는 “기뻐해서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격려했다. (11:23) 때로는 당신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격려이다.

내가 2003년도에 처음으로 과테말라에 갔을 때, 나는 영적으로 굉장히 낙담한 상태에 있던 과테말라 침례교 소속의 지도자들을 만날 수 있었다. 국제선교국에서는 2000년부터 그들과의 협력사역을 중단한 상태였다. 그래서 2004년도에 나는 20명의 지도자들을 과테말라 전국에서 초청해서 집회를 가졌고, 그 집회를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의 vision을 찾도록 격려하고 위로했다. 그 집회를 위해 많은 분들과 단체들이 멀리서 오셨는데 그 중에는 Buckner Orphan Care, Baylor Health Care, Baptist University of America와 같은 단체들이 왔었고, 특히 달라스의 Park Cities Baptist Church에서도 집회에 참석했다. 그리고 2006년에 우리는 놀라운 소식들을 과테말라에서 들을 수 있었다. 그 집회 후, 과테말라 교회들은 성장하기 시작했고, 복음은 더욱 강하게 전해졌으며, 새로운 교회도 개척되었고, 새로운 사역들이 과테말라 침례교단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는 소식들이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꾼들을 추수할 밭으로 인도해야 한다.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그는 사울이 생각이 났다. 아무도 사울과 사역을 같이 하기 싫어할 때, 바나바와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서로 친구가 되었다. (6과의 사도행전 9:10-28을 참조) 사울의 회심한 후 바나바가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을 때까지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사울이 직접 고백한 사실을 볼 때, 그가 회심하고 3년 후에 예루살렘에서 교회지도자들을 만났다고 했으므로 안디옥에 왔을 땐 적어도 3년 이상은 되었을 것이다. (갈라 1:13-24) 3년 동안 떨어져 있는 동안에도 바나바는 계속 사울과 교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바나바는 나중에 사울을 다소에 있는 그의 집에서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사도 9:30; 11:25)

다소는 길리기아지방의 안디옥에서 북서쪽에 위치한 도시이다. 뱃길로는 50마일정도밖에는 안 떨어진 거리이다. 하지만 육로로 가면 100마일이상 가야하는데 이유는 먼저 북쪽으로 가는 대로를 따라 올라가서 다시 다소와 유프라데스를 동서로 연결하는 길을 따라 서쪽으로 가야하기 때문이다.

바나바가 서둘러서 사울을 빠르게 성장하는 안디옥교회에 연결시킨 몇 가지 이유가 있다. 1)사울은 정통 유대교인 이었다. (갈라 1:13-14; 빌립 3:4-6); 2) 사울은 지중해지역의 공통어인 헬라어에 능통했다 3) 사울은 가말리엘에게서 직접 가르침을 받은 성경에 능통한 학자였다. (사도 22:3); 4)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사울

은 이방인들을 위해 쓰실 도구라고 말씀하셨다. (9:15)

바나바는 사울을 빠르게 성장하는 젊은 안디옥교회에 사역을 맡기는 것이 안디옥교회와 사울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보다는 다소로 가서 그의 친구, 사울을 찾기로 한 것이었다. 이런 바나바의 결단과 노력이 없었다면 아마 오늘날의 사도바울은 없었을 것이고, 사도행전도 없었을 것이며, 바울의 모든 편지들도 없었을 것이다. 정확한 때에 정확한 연결과 방법으로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가지고 왔는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추수에 동참해야 한다.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안디옥의 땅을 추수하시는데 일꾼으로 동참했다.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에서 일 년 이상 성경을 가르치고, 교회사역에 집중적으로 동참했다 (11:26). 이러한 사역은 바나바와 사울이 처음으로 임명된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밑거름이 되었다 (13:1-3).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자신이 참여할 수 있는 곳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도시나 마을에서, 여러분들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작은 성경모임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모임에 먼저 참여하라. 그리고 성경공부를 인도하도록 하라. 만약 사업차 해외로 자주 여행을 가시는 분들은 그곳에 있는 선교단체와 연락을 하라. 우리가 지금 당장 참여할 수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사역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조금씩 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사역의 문을 열어주신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추수의 하나님 이시다.

질문

1.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을 여러분의 교회로 인도할 때 편안함을 느끼는가?
2. 만약 여러분과 다른 분류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교회에 온다면 그들은 여러분의 모임에 쉽게 낄 수 있는가?
3. 최근에 여러분의 교회 외부의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눈 적이 언제인가?
4.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5.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교회에 허락하신 사역에 꼭 참여시키기를 원하는 내 주위에 사람은 누구인가?
6. 여러분의 교회는 새신자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격려하는가?

참고

“그리스도인”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사도 11:26)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Christianous”라는 단어를 번역한 말로써, 헬라어의Christ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다. 이 말은 믿지 않는 자들이 먼저 쓰기 시작한 말이다. 바울은 그의 글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쓴 적이 없다. 베드로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쓴 유일한 사도였다. 그는 베드로전서 4:16절에서 한번 썼는데,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으로써 핍박 받았음을 인용하면서 이 단어는 핍박자들이 썼던 단어라고 말했다. 그 후, 2세기동안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 많은 기독교인들은 순교를 당했는데, 그때도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면서 순교를 당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이 처음부터 자신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는 않았다. 그들은 핍박을 피해 서로 그리스도인임을 밝히기 위해서는 “물고기 (ixthus)”라는 비밀기호를 사용했다. 이는 Iesus Kristus Theou Uios Soterios의 줄임말로, 헬라어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뜻이었다.

단원 3: 세계를 향한 선교

3단원에서는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세계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것을 따라가 보자. 이제 그들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실로 그들은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을 넘어서서 복음을 전한다. 그들은 그들이 알고 있었던 모든 세상들을 돌아다니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본 단원의 과목들은 사도행전의 온 세상을 향한 증거로부터 시작한다, 즉 행 13:1--28:31절까지이다. 이번에 공부할 특정 구절들은 우리 모두가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사역하는 일에 동참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비록 그 일에 어려움과 고난이 따를지라도 말이다.

단원 3: 세계를 향한 선교 (행 13:1--28:31)

| | | |
|-----|------------------------|-----------------------------------|
| 9 과 |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을 따라가기 | 행 13:1-6a, 13-16, 42-52; 14:19-22 |
| 10과 | 예수께 다시 초점을 맞추기 | 행 15:1-22a |
| 11과 |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 행 16:13-15, 25-34 |
| 12과 | 회의론자에게 전도 | 행 17:10-11, 16-34 |
| 13과 | 안으로는 봉사하고, 밖으로는 전도하기 | 행 19:8-10; 20:18-35 |

가 가

8:1 : "그 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그리고 4절에 이렇게 덧붙이고 있다: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왜 그러한 박해가 교회에 닥쳤을까?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의 동기를 간파할 수도 없다. 하지만 나는 한 가지 타당한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다. 초대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박해가 교회에 닥치는 것을 허용하셔서 제자들을 강제적으로라도 흩으셔서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하시고자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때에도, 이것은 사도행전 1:8절의 명령이 단지 일시적으로 이행되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마침내 이 명령에 본격적으로 순종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따로 세워서 보냄 (13:1-6a)

고대 안디옥은 갈릴리 북쪽지역인 시리아에 있었다. 박해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졌던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안디옥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11:21). "수많은 사람"은 유대인들과 이방인 모두를 포함한 것이었으므로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모습을 띄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통적 끈에 의해 하나로 묶여졌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빵을 나누고 교제를 하는 모습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바나바를 보내서 조사를 했다. 하지만 바나바는 자기가 살펴본 것으로 인해 오히려 고무되었다 (11:23). 그래서 그는 사울을 안디옥에 데리고 왔다. 거기서 1년 동안 바나바와 사울은 교회가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르쳤다.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그 다음 단어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면이다. 즉 교회 지도자들은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해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도록 전략적으로 보낸 장면이다.

본문을 보면 다섯 명의 핵심적인 사람들이 조명을 받고 있는데, 이들은 소위 “예언자들과 교사들” (행13:1)이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 “교사들”은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에 대해서 가르쳤다. 사울과 바나바는 둘 다 안디옥 출신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잘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다른 세 명은 어떨까? 누가는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이라고만 기록하고 있다. 그 이상은 밝혀진 것이 없다.

이들 다섯명 중에서 두명은 선교사로서 따로 세웠다 (13:2). 교회가 이 둘을 임의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선택했다는 것을 주의하라. 행 1:8절의 교회가 되는 것,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은 우리의 전략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전략에 우리가 사용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분이요,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요. 교회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사람들을 보내는 것이다. 어떻게 그것을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일하실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듦으로써 할 수 있다. “예배”와 “금식”을 통해 안디옥 교회는 적합한 환경을 조성했고 성령께서는 바나바와 사울을 택하셨다.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기 전에 두 가지를 했다 (13:3). 첫째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했다 (13:3). 이러한 영적 행습들을 통해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그들의 모든 것을 의지했다. 금식은 종종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갈망을 반영하는 회개의 표시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금식은 헌신의 표시였고, 자연스럽게 기도로 이끌었다. 둘째로, 교회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안수”했다 (13:3). 이곳을 포함한 신약성경 세 곳의 안수기도는 성령의 은사를 부여하거나 혹은 어떤 사람들에게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는 의식이었다 (행 6:6; 딤후 4:14; 딤후 1:6). 손을 얹는 행위 자체가 이러한 은사들을 부여하거나 이러한 임무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 것은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손을 얹는 행위는 성령께서 이미 행하신 일을 모든 사람에게 공표하는 의식이었다.

권면하고 격려하다 (13:13-16, 42-52)

선교 일행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소아시아 남부의 로마령에 속한 밤빌리아로 들어갔을 때, 젊은 마가는 집으로 돌아갔다. 사울은 이것을 헌신의 부족으로 여겼다 (행 13:13; 15-38). 13 장에서부터 사울이 바울로 호칭되고 그가 우리의 리더격으로 나타난다. 이전에는 “바나바와 사울” (13:2,7)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바울과 그의 무리들” (13:13)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한 뒤의 선교적 일들을 누가는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한다. 바울과 바나바는 늘 하던 대로 먼저 회당을 방문했다. 거기에서 그들은 강연자로 초대되었다 (13:15). 바울은 설교를 했다. 그는 예수의 삶과 죽음,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부활했다는 것을 증거했다 (13:16-41).

바울의 설교는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회중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그리고 다음 안식일에 다시 강연하도록 초청되었다 (13:42). 그 다음 안식일에는 적대적인 유대 지도자들이 격렬한 반대로 분위기를 압도했지만 말이다. 결과적으로, 바울은 회당을 떠나야 했다 (13:46). 하지만 유대 지도자들에 의한 이러한 반대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친 것이 비시디아 안디옥 선교를 무너뜨리지는 못했다. 단지 새로운 방향으로 나갔을 뿐이다.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막히자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13:46). 바울은 그들의 선교에 대한 방향전환을 구원의 복음이 온 땅에 선포될 것이라는 이사야의 예언 성취로서 해석했다 (13:47; 참조 사 49:6). 막힌 문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또 다른 열린 문으로 전환하게 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서 얼마나 많이 이러한 갈등과 반대에 부딪치고 있는가? 우리를 격려하는 지지와 함께 공개적인 비판은 우리가 교회의 사명을 수행할 때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다. 아픔과 기쁨이 같은 상황 속에서 일어난다. 실패감이 성취감을 쉽게 희석시켜버리고 만다. 우리는 오늘날 사역을 감당하면서 어려움들에 부딪힐 때 바울과 바나바도 역시 이러한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격려받을 수 있을 것이다.

곤경에 빠졌지만 멈추지 않다 (14:19-22)

반대와 어려움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디아 남부에 있는 주요 도시들 중의 하나인 이고니온에서 이고니온의 바로 남쪽에 있는 루스드라로 옮겨갔을 때도 계속되었다. 특히 루스드라에서는 이 선교 무리들에 대한 반대가 극에 달해서 군중들은 바울을 성 밖으로 끌어내어서 돌로 쳐 죽인 후 내 버렸다 (14:19).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 바울의 사역을 마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선교 사역을 위해 바울의 생명을 보존하셨다. 누가는 바울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돌로 쳐 죽은 상태에서 스스로 일어나서 돌아온 장면은 어떤 놀라운 기적을 보여준다. 아마도 더욱 놀라운 것은 바울이 자기를 돌로 친 사람들이 있는 바로 그 성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것일 게다. 바울은 한 가지 진리를 증거한다. 이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이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서 기꺼이 하고자 하는 결단이다.

가

(14:21).

가

가?

가?

()

()

,

가

가 가

(14:23).

가

! 가 1

1

질문

1. 당신 교회의 선교사역을 고려해 볼 때, 그것이 일시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계획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2. 안디옥 교회 선교사역의 전략적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3. 사역자들과 선교사들로서의 사역을 포함한 일반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당신의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
4. 당신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 특별한 용기를 보여준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는가?
5. 당신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본문의 바울과 바나바처럼 믿음을 위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라면 왜 그런가?

[참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말씀” (4:31; 6:2,7; 8:14; 11:1; 12:24; 13:7; 17:13; 18:11)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을 때 그것은 항상 복음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누가는 예수님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 (눅 5:1)으로서 일찍이 표현한 바 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땅에 뿌려져 영생을 날게 하는 씨로써 표현하셨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용어는 어떤 사람 (예수님) 이나 혹은 어떤 책 (성경)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그 대신에 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에 의해 먼저 선포되어지고 교회에 의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으로써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누가는 말씀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행 4:31)에 관하여 말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을 찬양하고 (6:7), 받아들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행 8:14) 말하고 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초대교회에 의해 전파된 복음의 메시지이다.

안디옥: 선교하는 교회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에서 안디옥 교회와 같은 선교적 원리들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음과 같이 해야 된다:

- ◆ 계획적이어야지 일시적이어서는 안된다.
- ◆ 선교적 명령이 명확하게 이해 되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 ◆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소명이 분명한 사람들을 보내야 한다.
- ◆ 선교를 위해서 최고의 사람들을 보내라
- ◆ 우리 스스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 | |
|---------------------------------------|--|
| [10] | |
| <p>행 15:1-22a</p> <p>행 15:1-35</p> | <p>교회는 다른 요구사항들이 아닌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고 선포함으로써 예수님께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p> <p>예수 안에 있는 믿음 외에 구원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는 다른 무엇을 더한 적이 있는가?</p> <p>예루살렘 종교회의 내용이 무엇인지 요약하고 구원은 다른 어떤 것도 더할 수 없고 오직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기</p> |

들어가기

가?

가 .

A.D.48

붙임지 (15:1-5)

교회가 탄생되었을 때는 먼저 유대 율법을 준수했던 유대인들만 모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유대 관습을 따랐던 자들이다. 하지만 그리고 나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기독교의 믿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고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확장되었던 것이다.

예를 들면, 가사로 가는 길에서 빌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교의 일신주의와 도덕적 가르침에 매료되었던 이방인이었을까?), 아마도 유대인었을 가능성이 높은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다.

빌립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전파한 후 그에게 침례까지 베풀었다 (행 8:34-39; 5과를 참조하라).

주님이 주신 환상에 이끌리어 베드로는 가이사랴에 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10:2)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파했다. 고넬료와 그의 가족이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고백했을 때, 베드로는 그들에게 침례를 주었다. 성령님은 이때 오순절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유대 신자들에게 내렸던 것처럼 내려서 그들의 회심의 진정성을 확인시켜 주셨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의 핍박을 피해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은 안디옥까지 오게 되었다. 그들은 거기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는데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행 11:21). 안디옥 교회의 부흥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신자들의 관심을 사로잡았고 그들은 그것을 확인하고 조사하기 위해서 바나바를 보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승인했다 (11:23). 안디옥 교회로부터 행 1:8절의 대사명을 성취하는 최초의 전략적 노력이 시작되었다. 우리들은 지난 주 수업에서 그 노력의 결과들을 공부했다. 그 노력의 결과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심지어 사마리아인들까지, 행 8:5)이 함께 하나가 되었다. 후에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서 (엡 2:14-18)에서 “새 사람”으로 묘사한다.

아이러니컬 하게도 예루살렘에 있던 어떤 지도자들은 이것을 그렇게 달갑지 않게 받아들였다. 그들의 기독교 개념은 오직 유대교 테두리 안에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구원의 교리에 대한 불일치가 일어났다.

한 쪽 무리는 기독교 믿음은 유대적 관습 속에서 꽃 피워야 된다고 믿고 있었다.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자들은 우리 본문에서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신도가 된 사람” (행 15:5)으로서 묘사되어 있다. 이들은 누구였는가? 많은 주석가들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들을 갈라디아서 2:12절에서 인용된 야고보가 파견한 사람들과 동일시한다.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것은 구원에 대한 그들의 입장이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만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두 가지 의무들을 더했다. 하나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15:1,15)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유대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고 (15:5)는 것이었다. 이 율법주의자들은 안디옥 교회에 가서 그들의 입장을 천명했다 (행 15:1)

다른 부류는 직접 경험한 자들로서 율법주의자들의 한계를 흔들어 놓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든, 어떤 종교에 속한 사람들이든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들을 모두 교회에 반갑게 받아들였다 (15:2-4).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입장이었다. 안디옥 교회는 다시 한 번 바울과 바나바를 지명해서 이번에는 예루살렘으로 복음의 대변자로서 보냈다.

바울과 바나바가 구약의 관습에 대해서 논쟁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목하라. 그들은 단지 그들의 소아시아 선교 여행 가운데서 경험했던 일들을 보고했다 (15:4).

우리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그들은 그들과 예루살렘에 있던 그들의 동료 그리스도인들과의 긴장을 무시하려고 하지 않았다. 또한 그들은 인위적인 화합을 만들려고 하지도 않았다. 대신에 그들은 그 문제를 직시했다. 그리고 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루살렘 회의에 대표자들을 파견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을 막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대신에, 바울과

바나바가 “페니키아와 사마리아,” 를 지날 때 그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공개적으로 전파했고 다른 비유대교인들이 어떻게 회심하는 것인가를 분명하게 증거 해주었다 (15:3).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진심에서 우러난 환영으로 그들을 맞아 주었다 (15:4). 하지만 이러한 진정한 환영이 그들의 입장에 완전히 동의한다는 표시는 아니었다. 두 측은 그들의 입장을 서로 설명해서 모든 사람이 함께 동의할 수 있는 어떤 결론에 도달해야만 했다.

토론 (15:6-12)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회의에 참석했었는지 모른다. 누가는 15:12절에서 “온 회중 (large assembly)”과 15:22절에서 “온 교회 (whole church)”를 언급함으로써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군중 가운데서 누가는 “사도들과 장로들”(15:6)을 언급한다. “사도들”은 신약성경에서 공식적인 의미에서 그리고 일반적인 의미에서 모두 사용되었다.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의 열 두 제자들을 가리키는 경우에 사용되었다 (마 10:2). 하지만 어떤 경우에 그 용어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야고보 (갈 1:19); 바나바와 바울 (행 14:14);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롬 16:7); 그리고 실라 (살전 1:1; 2:6)와 같은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었다. 본문에서 사도들이란 일반적인 의미에서 사용된 것 같다.

“장로들”은 다른 신약 책들 (행 20:17,18; 딤후 1:5,7)에서 “감독들”이라고도 쓰였다. 그들은 각 교회의 지도자들이었다 (행 14:23).

베드로는 회의의 안건인 구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논쟁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그의 경험을 이야기 했다. 그는 그곳에서 고넬료와 그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다 (10:24; 15:7-11). 하지만 이것은 사실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야기였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이방인 고넬료에게 보냈던 것이다 (15:7).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므로써 고넬료와 그의 가족의 구원을 확인시켜 주셨던 것이다 (15:8). 또한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이셔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던 것이다 (15:9). 고넬료와 그의 가족의 구원이 참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었다.

일전에 베드로는 자기가 고넬료의 집에서 있었던 경험을 더욱 강렬하게 표현했었다. 오랫동안 유대인으로 살아온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본인 스스로 깜짝 놀랐다. 그것은 구원에 관한 그의 패러다임을 깨는 것이었고, 그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넬료의 구원의 진정성에 의심을 걸 수 없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증했기 때문이다. 베드로는 솔직하게 말한 것이다: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가 나와서 말하기 시작했다.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구원문제에 대해서 논쟁하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소아시아에서 있었던 그들의 경험을 나누었다. 소아시아에서 그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유대인의 관습을 전혀 알지도 따르지도 않았던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체험하는 것을 보았다 (15:12). 누가는 바나바와 바울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기록하지는 않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베드로의 이야기와 다른 이야기였지만, 근본적으로 베드로와 같은 내용의 이야기였다. 바울과 바나바는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이 이야기들이 그들이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라는 것을 드러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배울 수 있다. 우리는 간증할 때 얼마나 우리 스스로를 자랑하는가?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성취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것이다. 바울처럼 우리는 모두 이렇게 말해야 한다, “나에게 능력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빌 4:13)

결정 (15:13-22a)

여기까지 이르자, 간증의 무게는 아주 명확하게 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당시 교회 회의의 중도파였던 야고보는 적절한 결론을 내렸다.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 투표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목하라. 토론이 끝난 후, 야고보는 베드로, 바울과 바나바의 보고를 통해 무엇이 하나님의 결정인지 명확하게 명료하게 말했다.

야고보는 성경 본문 속에서 그의 결론을 내렸다. 아모스 9:11-12; 예레미야 12:15; 그리고 이사야 45:21절을 인용하면서 야고보는 이방인들에게서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은 오직 선지자들이 이미 수세기 전에 예언한 것이 성취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15:16-18).

이러한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야고보는 예루살렘 회의 주요 안건이었던 문제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취했다. 구원에 관련하여 야고보는 애매하게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확증한 것에 대해 어느 것도 더해서는 안됐다 (행 15:19).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일단 하나님의 뜻이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명확해지자, 그들은 안디옥 교회에 대한 결정을 전달하기 위해 다음 단계를 구체적으로 상의했다. 그들은 안디옥 교회에 보낼 편지를 썼다. 또한 그들은 유다와 실라를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보내서 그 편지를 안디옥 교회에 전달하도록 지정했다.

이것이 그 문제를 영원토록 해결했을까? 아니다. 그 논쟁은 계속됐다. 하지만

초대교회의 선교적 노력으로 뺄리지 않는 하나의 지표가 박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다른 것도 요구되지 않는다. 그것은 더 이상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이었다.

적용과 실천

이 예루살렘 회의는 교회의 초기 발전에 몇 가지 이유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예루살렘 회의는 구원의 조건에 대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중요하다. 예루살렘의 그 역사적 회의에서 교회는 오직 예수만이 구원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증했다. 구원의 조건은 오직 예수이다 -- 결코 예수를 믿는 믿음에 침례나 혹은 할례나, 혹은 교회회원자격이나, 혹은 다른 어느 것도 더하는 것이 아니다.

(16:15)

” (16:14)

가

“

“

”

가

7

가

“

” (16:14)

“

” (16:15)

가

이교도이었던 관수를 전도하다(16:25-34)

(16:16-24).

가 “

”

가

가

가

“

”

(16:24).

가?

(16:25)!

가

가

“

” (16:25)

가

가?

가?

가

(16:30), “ 가

?”

?

가

가

가

“

가?”

가

가

(16:15),

가

(3:13-16),

가 가

적용과 실천

· ,
· ,

가

가

: “

”

가

가

가

질문

1. 가 “ ” 가?
2. 가 가?
3. 가?
4. 가?
5. 가 가?

[참고]

가 , .
 “ ” (16:15). “ 가
 ” (16:34) 가 .
 _____ 가?
 “ ” . 가 , “ ” 가
 , 가
 가
 (16:34),
 (3:23). “ , ” (14:6)
 .
 가?
 : _____
 _____ ? 가?

| | |
|--|------------------------------|
| [12] | |
| <p>17:10-11, 16-34</p> <p>17:10-34</p> | <p>가 .</p> <p>,</p> <p>?</p> |

들어가기

가 ,
/ 가

회당에서 전도하다 (17:10-11)

가 . 가

가 “ 가 , ” (17:11)

가 . 가 (17:10).
 가 “ ” (17:11) .
 가가 ” “ ” (17:11). “ ” .
 (kerygma) : 가 ;
 ;
 4 가
 가 “ ” “ ” .
 가 가 15:3-4 .

광장에서 전도하다 (17:16-18)

가 가 (17:14).
 가 가 가 가
 (17:16). 가 가
 (17:17).
 가 “ (reasoned)”
 . ” 가 “ ” . 가 ,
 가 “ ” (17:18)

가 (17:18). “ ” 가
 가
 “ ”
 가?
 “ ”
 가? 가
 1:8 가
 가 가 가
 “ ” (17:18).

철학자들에게 전도하다 (17:19-34)

바울의 새로운 가르침이 그들의 호기심을 매우 자극해서였는지, 아니면 바울의 가르침이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오도할 것이 염려되어서였는지, 이 철학자들은 바울을 불러서 그의 가르침을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설명하도록 했다. 아레오바고는 어떤 장소이기도 했고, 동시에 지도자들을 일컫는 명칭이기도 했다. 오늘날 본문에서 그 단어는 지도자 그룹을 가리키는데 사용되었다. 그들은 새로운 사상을 관리하는 자들이었고, 원하지 않는 거짓 교사들을 대항하는 보호자들이었다. 그들은 바울을 초대해서 그의 사상을 그들에게 말하게 했다.

아레오바고 앞에서 바울의 설교는 수사학적으로 눈부신 것이었지만 사도행전의 다른 곳에 나타난 바울의 설교와는 뚜렷하게 달랐다. 사실 그 수사학적 화려함은 그 독특한 접근법에서 드러난다.

예를 들어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한 메시지는 그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했던 메시지와 달랐다

(13:15-41). 누가는 아마도 메시지를 요약해서 우리에게 남겼을 것이다. 하지만 그 요약적인 메시지만을 가지고서도 아테네에서의 메시지는 명확하게 독특하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구약성경의 히브리 예언자들을 인용하지 않고 그리스 시인들을 인용했다. 그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언급하지 않고 세상의 창조자로서 강조했다. 그는 성경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고 아테네에서 있었던 경험을 가지고 말을 시작했다. 바울은 아테네의 청중들에게는 수사학적으로 접근했다. 아테네에서 바울의 설교는 그가 이전에 했던 설교와 달랐는데 그 이유는 청중이 달랐기 때문이다.

그 반응도 다양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일부 사람들은 의심스럽게 반응했고, 일부 사람들은 믿음으로 반응한 반면 일부 사람들은 더욱 신랄하게 반응했다.

나는 과거에 많은 설교자들이 아테네의 의심스럽고 신랄하게 반응한 것은 바울이 “단지 예수만을 설교”했기 때문이라고 그 원인을 돌리는 것을 많이 들었다. 나는 그것은 요지를 놓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다양한 반응은 다양한 청중들에 기인한 것이다. 아테네에서 영적 토양은 아직 구약 율법의 가르침에 대해 무지했고 예언자들의 약속들에 대해서도 무지했었다.

바울은 이러한 적대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할 때 그의 메시지를 바꾸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을 바꾸었는데, 이는 그가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할 때 청중들이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적용과 실천

가
 가 ,
 가 가
 가

질문

1. 가 가?
2. 가 가?
3. 가?

4. , , 가?

[참고]

가

가 () 1 가

가 , “ ”

(17:23).

가?

?

:

, 가

가 가

| | |
|---------------------------------------|---|
| [13] | |
| <p>19:8-10; 20:18-35</p> <p>19-20</p> | <p style="text-align: right;">가 .</p> <p style="text-align: center;">가 가?</p> <p style="text-align: right;">가</p> <p style="text-align: left;">가</p> |

들어가기

가 .

가 : “

” (11:1). 가

가

가 : 가

“ ”

“ ”

: “ 가 , 가 .”

가 가 .

바울의 가르침 (19:8-10)

가
 (18:19-21).
 가
 가 (19:8). 가 가 가
 가 , 가
 가 2 가
 가 가
 “ (道, the way) ” , “ ” (19:9)
 가 , “ ” (9:2)
 가 가 9:2
 “ ” (4:19)
 가/
 가 가

바울의 사역 (20:18-21)

가 가
 (19:21). , 가
 (19:22-20:17). 가
 가 가

(20:18).

(20:19).

가

(20:19). 가 가

가 가

가

(20:20-21).

가? 가
가

바울의 미래 (20:22-27)

가? 가

(21:10-11). 가 가
가

“ ” (20:24) . “ ”
가 . “ ” 가

가?

가

가 가 가
가

바울의 도전 (20:28-31)

(20:28).
 “ ” “ ” (20:28)
 가 (20:28).
 ”
 ,
 3 (20:31).
 가?
 가

바울의 헌신 (20:32-35)

가 가
 가 (1:7-8; 2:5-8; 4:7) .
 : “
 ” (4:19) .
 가
 (20:33-35).
 : “ ” (20 “ 35) .
 가?
 가 가 가
 , “ 가 ”
 (10:43) .

질문

- 1. 가?
- 2. 가 가 가?
- 3. 가 가?
- 4. 가 가?
- 5. 가?
- 6. 가?

[참고]

“ (19:8) .
 (1:3) (28:31)
 (8:12; 14:22) .

가 가 .
 “ ” (16:10; 20:24) . 가 가
 (8:12; 8:40) . 가 가 .

가 가 (1:3),

가 , 가
가 가 .

예수님이 무딘 마음에 말씀하시다 (24:25-27)

가? , _____ 가?
: _____ 가? _____ 가
_____ 가? _____ 가
_____ 가?

가 (24:17):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 받는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본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 ” 가 .
!
 . 가
 , , 가 ,
가 . 가 “ ”
가 .
가 .
 , .

당신의 목적지를 뛰어넘는 여행 (24:28-35)

가 가 .
가? , 가 “ ” .
 .
가 .
 , , ,
 ,
 .
 ,
가? 가 ,
가가 ? .

가
 ,
 ,
 ,
 !

질문

1. 가가 가? 가?
2. 가? 가?
3. 가 , , , , 가?
4. 가 가?
5.
 - a. _____ (from)
 - b. _____ (to)
 - c. _____ (for)
6. 가?

[참고]

“ ”

1930 가 가 B.B. McKinney (Winn Parish Sunday School Board

) 가 , “ 가 .
.....” 가
?

가 가?

: _____
가?